

Weekly 공감

2010.11.24 No.86
gonggam.korea.kr

자율과 경쟁, 교육개혁의 힘 p17~35

아시아 '녹색원조' 한국이 이끈다 p36~41

완벽 부활한 '마린보이' 박태환 p50~51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법

학교 자율화, 공교육 내실화와 선진화, 지방교육자치 내실화, 학교 지원 기능 중심의 지방교육행정체계 구축, 교사의 업무경감체계 개편,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현장 적합성 제고…. 정부는 교육 자율화의 기조 아래 공교육 체계와 운영 전반에 걸쳐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들은 잡무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직무에 몰두할 수 있으며 교육청도 학교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게 된다. 교육 선진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즐거운 학교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개혁 의지에 부응해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살아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 기능 개편 구상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교육개혁이 가져올 결과에 쏠려 있다. 지금까지 변화와 혁신을 기대했던 역대 정부의 수많은 정책들이 당초 의도에 비해 결과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 시도했던 변화의 노력은 학교 선진화 동력으로서 공교육 체계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패했고, 수요자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는커녕 왜곡된 공리주의적 경쟁 속에서 이기주의와 경쟁주의, 출세주의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왜 수많은 교육개혁과 변화의 노력들이 해당 정책에 담긴 의도가 훌륭하고 변화의 의욕 또한 충만했는데도 실패했을까. 무엇보다 정부가 변화 관리에 취약했고, 학교도 변화에 대처하는 자율적인 수용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조직 구성원과 조직의 문화가 변화의 내용을 수용하지 못한다면 기대되는 변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변화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변화의 지속적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까지 학교 현장은 정부 주도의 개혁과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수용해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교 현장이 자율적이고도 창의적인 변화 주도세력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개혁과 변화의 호기를 맞고 있다. 정부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명실상부한 교육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공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나가 되고 일반 행정직과 교육 전문직, 교사가 하나가 되어 그동안 쌓은 담을 헐고 학교교육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변신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변화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추진동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변화의 추진동력이 될 기제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이 절실하다. G



정영수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Weekly
2010.11.24
No.86(통권 187호)



표 지 이 야 기

수영 황제의 '재림'.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
노메달의 충격에서 벗어나
한층 더 진화된 기량으로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수영
자유형 3관왕을 차지한 박태환.

사진 · 연합

Contents



 일러스트 · 이우정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1.24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기 획 특 집

대한민국의 희망, 교육개혁

건강하고 신나는 교육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며, 학업에 대한 열의만으로도 가능해진
대학 진학. 우리 교육정책이 향하는 곳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입니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5호(11월 17일자) 기획특집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와 의미'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숙한 시민의식, 선진국 진입의 원동력"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끈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번 정상회의 성공 개최의 주춧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손님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향상시킨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_이범기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서울 시민과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또한 찬사를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만난 외국인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고, 어디서든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질서의식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찾은 손님을 잘 대접하려는 배려심의 발로였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_황복희

개발도상국 아우른 G20 정상회의 호평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외신 반응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고 개발도상국의 처지도 아우른 정상회의였다는 호평이 많았습니다. 각국마다 처지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맞물려 완전한 합의는 불가능했겠지만 이견을 좁히는 진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G20 정상들은 물론 외신들이 한국의 발전상에 놀랐다는 보도도 기분 좋게 봤습니다."_장삼동

85호 '인터뷰 / 종교 화합 실천하는 부산 정각스님'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모든 종교의 시작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정각스님의 말씀에 감명받았습니다. 작금의 화두는 소통과 상생입니다. 내 종교가 중요하면 타인의 종교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소통과 상생의 방향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_ grimchaek

85호 '포커스 / 조선왕실의궤 돌아온다'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문화재의 소중함과 국력의 중요성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자양분인 것처럼 문화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디딤돌과 같습니다. 문화재를 소중히 아는 민족이 바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국력이 약할 때 빼앗긴 문화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국력이 신장됐음을 방증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_ jeongiun





알립니다

인터넷 중독,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인터넷과 인터넷게임 과다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극복 수기를 모집한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우수작은 인터넷 중독 유형별 상담 사례집에 담아 출간할 예정이다.

모집 부문 | 초중고 학생과 대학생, 일반인 등 3개 부문
참가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2월 5일까지
응모 방법 | 수기는 A4 5장 내외(글자 크기 12포인트, 줄 간격 1백80퍼센트)로 작성,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응모양식 내려받아 기재 후 전자우편(15990075@nia.or.kr)으로 제출
수상자 발표 | 12월 둘째 주 이후 홈페이지에 게재
한국정보화진흥원 ☎ 02-2131-0374 iapc.or.kr

법질서 지킴이 캐릭터 · UCC 보내주세요

생활 속 작은 질서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풍토를 만들기 위해 법질서 UCC(사용자제작콘텐츠)·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법질서 캠페인 콘텐츠의 개발과 확대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공모 분야 | 로고송 뮤직비디오, 법질서 캠페인 UCC, 법질서 캠페인 캐릭터 등 총 3가지
참가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1월 30일까지
응모 방법 | 법질서 홈페이지의 '함께하는 법질서-이벤트 코너'를 통해 응모할 수 있으며, 작품 크기가 1백 메가바이트(MB) 이상이면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등록한 뒤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기획단에 우편으로 제출한다.
접수처 | 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5동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기획단 406호
수상자 발표 | 12월 8일 법무부 법질서 홈페이지에 게재 및 개별 통보
시상 내용 | 대상(1명), 우수상(3명), 장려상(3명), 특별상(3명) 등 총 1천만 원 상당의 상금 및 상장 수여 예정
법무부 ☎ 02-2110-3726 moj.go.kr 법질서 홈페이지 lawnorder.go.kr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1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이고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 전략을 말하죠. "아시아 OOOO, 대한민국이 이끈다!"
3. 말이 끄는 수레.
4. 금을 캐내는 광산.
6. 어떤 일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하도록 함. "대입 OOO."
8.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 그러니까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이죠.

세 로

1. 보성 하면 OO, 우전·세작…
2. 성적은 우수하나 가난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보조해 주는 학자금.
3. 저고리 위에 덧입는 웃옷. 저고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깃과 고름이 없죠.
5.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중국 남부의 도시. 廣州.
7. 다양한 생태체험 등의 축제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강원도의 이곳. 산천어 축제로 유명하죠.

〈Weekly 공감〉 84호(11월 1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정상회의 3 손부 4 멕시코 6 맞선 7 프랑스
세로 1 정부 2 회령시 3 손님맞이 5 코엑스 7 프로

〈Weekly 공감〉 84호 '공감 퍼즐' 당첨자
권현옥·서울 양천구 신월2동
공선희·전남 여수시 여서동
김남일·강원 강릉시 입암동
박부용·대전 서구 월평동
최규환·서울 종로구 당주동

리더십, 선망이 아닌 ‘희망의 등불’

주철환 전 OBS 사장


동아DB

PD란 어떤 직업이냐, 사람을 모으는 직업입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이 즐겁게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PD의 역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하신 일은 상당히 ‘PD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대왕은 측은지심으로 국민을 대했기 때문에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 소통의 리더십, 창조의 리더십을 언행일치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창의력과 추진력, 백성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한글도 창조하셨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이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등불’이 돼야 합니다. 세종대왕은 한글뿐 아니라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하셨고, 비의 양을 알 수 있는 ‘측우기’를 발명해 보급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점은 유능한 젊은 학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집현전’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집현전에 유능한 학자들을 모았듯, PD 역시 사람들을 모읍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촬영을 잘하는 사람, 편집을 잘하는 사람 등을 모으는데, 모집 방법에서 PD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PD에게 필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아이디어를 실현해나가는 ‘추진력’,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는 ‘친화력’입니다. 세종대왕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분입니다. 국민에게 절실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과 이를 실행하는 추진력, 인재를 끌어모으는 친화력을 발휘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누구도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못된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PD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도 젊은 군인들이 무엇을 그리워하고 갈구하는지를 잘 파악했기에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PD 마인드는 이처럼 지금 사람들이 무엇에 갈증을 느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해 해소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를 이루려면 나 혼자로는 부족함을 인정하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모아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박수업 충남 아산시 탕정면

1. 생활정보 기사를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디딤툰, 공감카툰 같은 만화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습니다.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 온 가족이 좋아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책 코너는 양서를 골라주니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다짐까지 생긴답니다.

2. 단군 이래 최고의 경사라는 서울 G20 정상회의의 이모저모를 보니 대단한 결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지도가 많이 높아지고 앞으로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외신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대단하더군요.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된 이번 정상회의 덕에 이제 어디 가서든 “저, 한국인이에요!” 하고 큰소리로 뽐낼 것 같습니다.

3. 날씨가 추워지니 난방비 걱정이 앞서는데 겨울을 경제적으로 따뜻하게 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민균 전북 익산시 남중동

1. 북한산 둘레길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언젠가 시간을 내서 산책하기 좋은 곳을 찾고 있었는데 서울 도심에 이렇게 멋진 둘레길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이 잘 연계돼 있다니 가까운 날씨 좋은 휴일에 가족들과 함께 꼭 방문해보고 싶네요.

2.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위기를 넘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인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 중심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3. 겨울철 건조한 날씨 때문에 발생하는 아토피 질환이나 피부병에 대처하는 법을 소개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24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자율과 경쟁, 교육개혁의 힘’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시한폭탄과도 같은 비만!

e-건강다이어리와 함께 지금 시작하세요!



비만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비만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암 등을 발생시켜
당신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지금 e-건강다이어리(http://diary.hp.go.kr)와 함께 시작하세요.

공공기관 국민혈세 낭비 반드시 막는다

인건비·과도한 복지기금 출연 등 지출 줄일 개선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소중한 국민 혈세를 지키고 나아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동참하는 일이다. 무리한 사업 투자를 지양하고, 과도한 사내기금 활용을 자제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적절한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11월 1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침은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무리한 사업 투자 등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사업 경비 절감과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 강화 규정도 신설했다.

예산편성지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과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복리후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총 인건비에 대해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해 전년 대비 4.1퍼센트 이내 인상 선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는 전년 대비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

인건비·경상경비 동결, 과도한 복지기금 출연 억제

특히 논란이 많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요건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2009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1백7만원으로 민간기업의 35만원보다

전국 지방공기업 CEO들이 지난 7월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시도 지방공기업 CEO 보고회'에 참석해 재무건전성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

2009년 공공기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현황(단위 : 개,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출연기관	출연액(a)	전체기관	보유기관	출연기관	출연액(b)	증감(b-a)	전년도 세전순이익(c)	출연율(b/c)
합 계	69	2,495	286	86	57	1,550	▲945	91,303	1.7
공기업	20	1,234	22	19	15	580	▲654	40,824	1.4
준정부기관	22	166	79	34	16	118	▲48	14,172	0.8
기타 공공기관	27	1,095	185	33	26	852	▲243	36,306	2.3

3.1배가 많다. 기금 누적액도 2조8백43억원, 근로자 1인당 1천4백45만원으로 일반 기업의 3.6배나 돼 예산 운용이 방만해질 소지가 높았다.

실제 일부 기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을 편법적인 급여 인상 수단 등으로 이용하거나 초중등생 자녀의 학원비로 무상 지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일반 국민정서와 괴리되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폐지 ▲주택자금대출 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으로 유지 ▲생활안정자금, 경조사비 예산 편성 금지 ▲주택자금 이중 지원 금지 등을 제한 규정에 추가한 데 이어, 이번에도 장기근속자나 퇴직예정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순금, 건강검진권 등 고액 기념품 예산 편성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미 지난해 요건 강화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크게 줄었다.

2009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57개 출연기관(공기업, 준정부·기타 공공기관) 1천5백50억원으로 69개 기관에서 2천4백95억원을 출연한 2008년보다 9백45억원을 감축했다.

또 기관 자체 노력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세전 순이익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의 재정 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해 발생한 순이익은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 노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형식화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사업 구조조정, 재무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그 면제 대상도 축소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따라서 최근 늘고 있는 해외투자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면제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사업, 재해 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등 긴급 요구 사업이다.

총 사업비가 5백억원이 넘는 신규 사업은 외부 전문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기관 선정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이 임의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특혜 등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높았다.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외부 전문기관은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성을 고려해 12월 말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패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해외투자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자본투자 등)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기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 1월 중 각 공공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영역 늘리고 면제 대상 축소

한편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과 채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 정부가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제 전환 및 시간제 근로자 신규 채용이 확대될 전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에 확정된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와 각 공공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들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 명세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 기획재정부는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 · 유재영 기자

‘생물자원 이익 공유’ 나고야 의정서 채택

생물다양성 보전 위해 지켜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시

2010년은 유엔이 정한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다. 최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0)는 나고야 의정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켜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생물다양성이란 생물의 종(Species)과 유전자(Gene), 생태계(Ecosystem) 다양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살아나지 않기에 중요성을 갖는다.

동아DB



다른 생명들이 사라지면 인류도 살지 못한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물수리가 경북 포항시 형산강변에서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다.

전래동화에 자주 등장하는 여우와 늑대, 구렁이 같은 동물 상당수가 멸종위기종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목록에는 여우와 늑대를 비롯해 2백21개 종의 이름이 올라 있다. 한번 사라지면 돌이킬 수 없는 지구상 모든 생명체를 위해 유엔은 2010년을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했다.

국제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COP10)’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를 채택해 국제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부여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2000년 1월 채택)’에 이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두 번째 의정서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인류 생존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는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막기 위해 1992년 리우 환경정상회담에서 1백50개 정부가 서명했으며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함께 ‘3대 환경협약’으로 불린다.

2011년 2월부터 향후 1년간 서명 기간을 거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나고야 의정서 이외에도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계획(2011~2020년) ▲CBD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전략 관련 결정문 ▲생물다양성 국제기구(IPBES) 설립 권고 등이 채택됐다.

1백92개 당사국 정부 대표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민간단체 대표 등 1만6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당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동아DB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범지구적인 문제다. 멸종위기종인 우리나라의 표범장지뱀과 분비나무(왼쪽부터).
'생물 해적질'로 고통 받는 아프리카 케냐 나쿠루국립공원의 홍학들.

국총회는 10월 18일 실무회의부터 시작해 마지막 3일간(10월 27~29일) 장관급 회의를 거쳐 총회 폐회를 불과 1시간 남겨놓고 의정서 문안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생물다양성 남남협력 전문가회의를 한국에 유치(2011년 초)하고, 국제자연보호연맹(IUCN)과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제11차 당사국총회(2012년 · 인도) 부의장국으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였던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의정서 채택으로 1992년 6월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된 후 지난 18년간 진행된 생물 유전자원 이익 공유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환경부는 나고야 의정서가 10만여 종으로 추정되는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국립생물자원관(2007년 10월 설립), 국립생태원(2012년 설립 예정) 등을 통해 국내 생물 유전자원 발굴을 위한 조사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인류는 의식주 특히 음식물과 의약품 및 산업용 산물들을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에서 얻어왔다. 미국의 조제약 처방의 25퍼센트가 식물 추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3천 종 이상의 항생제가 미생물에서 얻어진다. 동양 전통의약품도 5천1백여 종의 동식물을 사용하고 있다. G

글 · 박경아 기자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돼
의정서에 합의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

"나고야 의정서,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규칙"



조영철 기자

"이번 나고야 의정서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했던 김찬우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나고야 의정서가 다루는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나고야 의정서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생물 유전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산업과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많은 핵심 쟁점들이 시간에 쫓기며 봉합되었기에 후속 협상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김 협력관은 "지금까지 우리는 국제 환경협상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나고야 의정서 협상에서와 같이 우리만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도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훈련된 협상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3월 콜롬비아 칼리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고야 의정서 협상이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는 협상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안과 주장으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2008년 11월부터 람사르총회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국제 환경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활동을 펼쳐온 김 협력관은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에 열린 이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는 다르고, 기대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로 달라진 국제 외교무대의 분위기를 전했다.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브랜드는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기후변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저지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유엔 환경계획(UNEP)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을 UNEP이 추진하는 녹색경제 이니셔티브의 모범 사례로 알리고 있는 현황도 전했다.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통해 녹색성장이라는 '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는 개발도상국의 열망을 적극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이리 오너라~ 조선 사대부들의 풍류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 기념 '나들이'展

산수(山水)를 벗 삼아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삶을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종로구 관훈동 KCDF 갤러리 1층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해 마련한 '나들이'전(展).

우리나라를 방문한 G20 정·재계 리더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자 기획한 전시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그림인 '진경산수화'를 중심으로 사대부의 자연친화적인 풍류의식을 담아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8명의 명장과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에서는 '사대부의 나들이'라는 주제를 현재의 일상과 접목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의 흐름은 인간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衣), 식(食), 주(住)로 나눴다.

사대부들이 나들이할 때 착용했던 다양한 의복과 장신구 등을 만나보는 '의', 사대부의 미각을 돋웠던 식기류 등 식문화를 다룬 '식', 품격 있는 풍류에서 빠지지 않던 악기류와 휴식을 위한 침구 등을 소개한 '주'로 구성한 것.

통유리로 둘러싸인 '윈도 갤러리(Window Gallery)'에서는 조선시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고아한 자태를 뽐내며 행인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이이남 작가의 영상 작품 '그곳에 가고 싶다(진경산수)'도 상영 중이다.

최정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은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전시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됐으며 12월 5일까지 계속된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전시장에서 구매도 할 수 있다. G

글 · 김지영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KCDF 갤러리 ☎ 02-733-9041 www.kcdf.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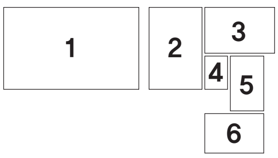












1 조선시대 생활상을 엿보게 하는 유물들이 전시된 윈도 갤러리. 벽에 걸린 모니터는 이이남 작가의 영상 작품 '그곳에 가고 싶다(진경산수)'를 상영 중이다.
2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즐겨 사용하던 옷감과 바느질함.
3 격조 높은 풍류를 즐길 때 가지고 다니던 가야금과 휴식용 침구류가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4 소반.
5 2010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한 윤규상 작가의 작품인 지우산(紙雨傘).
6 사대부의 문화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 좀 더 실용적인 생활용품으로 탈바꿈한 식탁보와 한복 .

"G20 정상회의 성공 수행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정책 뒤따라야"

주도적 리더십으로 국제무대서 한국 위상 높여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비(非)G7 국가 최초로, 신흥국 최초로 개최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러한 성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모범 국가이자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 모델인 한국이 그동안 4차례의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감에 따른 성과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10개의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세계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공조체제 구축과 합의사항에 대한 좀 더 성실한 이행 강조다.

10개 의제에는 '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상징인 한국 주도 의제 2개도 포함됐다. 개발과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다. 전자는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개도국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발 의제에 대한 논의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9개 분야의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 채택으로 이어졌다.

한국이 주도한 또 다른 의제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조체제의 필요성을 재강조한 것으로, 탄력대출제도(FCL) 개선안 등 성과물을 내놓았다.

한국이 제기한 신규 의제와 그 논의 과정을 보면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엿볼 수 있다. 즉 그동안 국제질서의 변방국가로서 선진국이 구축한 '룰(Rule)'을 마냥 따라가던 처지에서 새로운 룰을 제시하는 위치로 바뀌었으며, 한국 주도의 룰을 국제질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초미 관심사는 주요국 간 환율 갈등의 해법 찾기였다. 지난 10월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이후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RB)의 6천억 달러 추가 경기부양 조치로 G20 회원국 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됐다.

그러나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도록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전환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이는 적어도 환율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성공한 것으로, 사실상 '성공적' 합의 도출로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탄력대출제도 개선안 등 성과물 내놔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가장 큰 가시적 성과는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 성공이다. 즉 IMF 쿼터 개혁과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IMF 이사회의 유럽 2개 의석을 신흥국에 배정함에 따라 신흥국 위상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세계경제의 점진적 진일보'라는 가능성 속에 '환율, 글로벌 불균형 문제' 등에서 한계를 보이기도 한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세계경제 질서를 주도할 G20 정상회의 앞에, 그리고 의장국이었던 한국 앞에 놓인 과제는 여러 가지다.

그 첫째가 다자간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국제적 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즉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환율 갈등이 진정될 계기는 마련됐으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통화, 환율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점이다.
IMF 이사회에서 신흥국 의석을 늘리는 등 세계 경제계의 변화를 반영했다.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경제 펀더멘털을 잘 반영하도록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 전환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이는 환율 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성공함으로써 사실상 '성공적' 합의 도출로 평가할 수 있다.

갈등 구도를 포괄하는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 중 하나였던 금융규제 개혁 의제와 관련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011년 칸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대형금융회사(SIFI)에 대한 별도 리스트 작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벌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합의사항과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반응들이 자칫 G20 정상회의의 지속 가능성에 균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화·환율 등 다양한 갈등구도 포괄하는 해법 찾기 나서야

마지막으로,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질서의 빠른 변화 속에서 얼마나 빠른 대응전략을 구상하고 있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투기자본인 '핫머니'의 유출입을 막기 위한 토빈세(Tobin Tax·금융거래세),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세를 통한 거시건전성 구축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일부 외국계 증권사나 금융사의 창구를 통해 금리 차이에 연동해 움직이는 '캐리 트레이드'에 의한 국부유출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하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자문해봐야 한다.

이와 같이 '총체적 경제 시스템'을 놓고 고민하는 정부와 의회 그리고 관련 감독기구의 정책 대응이야말로 진정한 국격 및 국가 이미지 제고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도 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서울 컨센서스'의 확산과 개발 의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구호에 그쳐서도 안 된다. 좀 더 실질적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분명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책임의식과 역할 분담을 분명히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한국경제의 위상 제고와 그 파급효과를 제대로 국부(國富)로 연결하는 글로벌 전략과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고, 국민의 가치와 인식체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한 당위성과 설득력을 갖는다. G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 세계공헌 모델로 발전시키길"

한국, G20 통해 비회원국·국제기구 등 협력관계 확대에 기여

서울 G20 정상회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세계공헌 모델을 제시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공헌은 신흥선진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가장 큰 숙제다. 국제사회는 한국에 대해 물질적인 기여뿐 아니라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중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서울 G20 정상회의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리더십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최초의 시험대였다.

외신의 사후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G20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왕성한(energetic)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호평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도 한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 신흥개도국에 중요한 새로운 어젠다(의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물론 부정적인 기사도 많았지만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은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은 지도자들을 비판했다.

한국의 G20 리더십은 '가교국가 리더십'의 전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를 선진국과 개도국을 엮는 새로운 어젠다로 제안하고 합의를 이뤘다.

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설정하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개혁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양보를 선진국에게서 얻어냈다.

한국은 G20에서 소외될 수 있는 비회원국, 국제기구,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은 비회원국 협력 전담 대사를 임명해 비회원국 협력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최초의 의장국으로 평가받는다. G20의 등장으로 다소 위축될 수 있는 국제금융기구와 유엔과의 협력관계도 공고히 했으며,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한 비즈니스 서밋(B20)도 G20의 공고화에 크게 기여한 행사다.

한국의 G20 리더십은 '가교국가 리더십'으로 평가

한국 정부는 가교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때로는 한국 정부의 소신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많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사무국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그 결과 사무국 신설 문제는 내년 프랑스 파리 G20 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G20 초기부터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원칙을 제안하는 등 자유무역체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의 숙제는 한국의 G20 리더십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하는가 하는 문제다. 정부의 G20 리더십을 우리나라 세계공헌의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G20 리더십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그동안 축적한 지식을 체계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제도적으로도 G20 추진체계를 공고화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G20 정상회의 지원 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G20 연구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보다 많은 글로벌 거버넌스 전문가를 배출해야 한다.

정부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열정과 리더십으로 G20 성과를 한국의 세계공헌 모델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 G

대한민국의 희망, 교육개혁

건강하고 신나는 교육 풍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며, 학업에 대한 열의만으로도 가능해진 대학 진학.
우리 교육정책이 향하는 곳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입니다.



일러스트 이우정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고등학교에서 윤영동 교장(앞줄 가운데)과 학생들이 밝게 웃고 있다. 한때 폐교 위기에 몰렸던 이 학교는 2002년 자율학교로 지정된 후 각종 특성화 교육 등이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우등생이 몰리는 신흥 명문고로 거듭났다.

글로벌 인재 양성, 공교육이 선봉

고교 다양화·교육복지 확충 등 꿈·재능 키우는 배움터로 거듭나

정부는 그동안 교육발전을 해친 경직된 제도를 유연하게 바꾸고, 학교를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신나는 배움터로 만드는 데 공을 들여왔다. 학교교육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함과 동시에 누구나 교육비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 확충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에 힘입어 창의성과 인성, 자율과 책임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 키워드로 뿌리내리고 있다.

입시한파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날씨가 포근했던 11월 18일,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의 특징 중 하나로 EBS 교재와의 높은 연계율을 꼽았다.

정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EBS를 통한 온·오프라인 학습 활성화에 힘써왔다. 아울러 이번 수능에서 EBS 강의의 반영 비율을 70퍼센트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예고해왔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수능을 10여 일 앞둔 11월 7일 한국정책방송 KTV '정책대담'에서 "2011학년도 수능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율이 70퍼센트로 유지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시험 전반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학교에서 안 되는 부분은 EBS만 활용해도 다 해결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오류 부분을 없애기 위해 시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BS 측도 올해 국감에서 수능 교재에 오답, 복수정답, 오·탈자 등 오류가 많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 후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수능 교재의 오류 문제는 출제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EBS 교재의 높은 연계율과 오류 최소화는 공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동력으로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추진해왔다. 더불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터전이 공교육의 장(場)인 학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입시를 염두에 두고 사교육을 시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학교교육 체계의 긍정적 변화가 절실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에 주력해왔다. 기숙형고(1백50개교), 마이스터고(21개교), 자율형 공립고(58개교), 자율형 사립고(50개교) 등으로 분류해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교 다양화를 추진한 것이다.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학교가 여건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다. 학업성취도평가 전수 실시, 학력향상중점학교 지정과 지원, 학교정보 공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지원청 출범 등이 좋은 예다.



조영철 기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정환경이나 집안형편 등 외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지닌 역량과 재능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의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통해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학기당 이수과목 수를 기존의 10~13과목에서 8과목 이하로 줄이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 학교교육의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입학사정관제를 확산해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성적에만 매달리던 교육 풍토도 개선하고 있다.

"돈 없어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온 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듯 정부는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취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는 든든학자금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인하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대출금리는 2008년 2학기 7.8퍼센트에서 올해 2학기 5.2퍼센트로 줄었다.

학교정보 공시·교육지원청 출범 등 학교 경쟁력 강화 앞장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장애학생 의무교육 확대,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지정, 위기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Wee 프로젝트 확대 등 정책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확대한 것.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 EBS 강의의 질 제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힘입어 2001~2006년 연평균 12퍼센트씩 늘어나던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이 2008년 4.3퍼센트, 2009년에는 3.4퍼센트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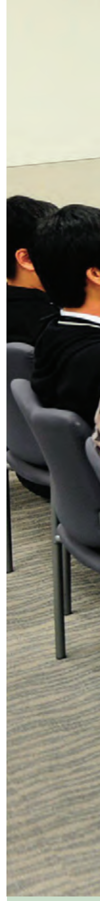
김준영 성균관대 부총장은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의 교육개혁을 성공으로 이끈 입학사정관제 도입은 성적 올리기에 급급한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1백 퍼센트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까지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교육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자율화와 다양화 정책이 우수 사례를 통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절차적 공정성 등 질적 내실화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현재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정환경이나 집안형편 등 외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지닌 역량과 재능을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의욕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G

글·김지영 기자



‘공교육 인재’ 입학사정관제로 키운다

교육환경·소질과 적성·창의성·성장잠재력 등 고려해 신입생 선발

입학사정관제가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인정받는 풍토가 형성되고, 초중고교에서는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 대학은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1 “영어의 영향력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원어민 개인강습을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작은 학원조차 다니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등 영어교육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사교육에 밀리지 않는 공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올해 공주대 영어교육과에 입학한 임태호(20) 군의 다부진 포부다. 임 군은 학원 한번 다닌 적이 없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영어 성적 1등급을 유지했다. 1학년 때 담임교사의 연구수업에서 조장으로 영어발표를 하면서 작지만 소중한 성취감을 느꼈던 그는 그때부터 영어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영문판 〈노인과 바다〉 등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친구들과 토론을 하며 영어공부에 몰두했다.

임 군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여의고 화물선 선장인 아버지가 국내에 있는 날이 1년에 두 달밖에 되지 않아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다. 중학교 때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형도 군에 입대해 혼자 지내야 했지만 그럴수록 더 활발하고 당당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고교 2학년 때부터 임 군은 신문동아리 부장, 학급 반장, 총학생회 부회장, 총학생회장을 맡아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해나갔다.

14명의 지원자 중 2명을 선발하는 영어교육과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임 군의 내신성적은 최상위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진가는 심층면접과 토론에서 드러났고, 결국 최종 1위로 입학이 결정됐다.

공주대 입학사정관인 우상균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임 군에 대해 “사교육 없이 높은 영어성적을 얻었으며 목표를 향한 열정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심층면접에서 지적 열정과 리더십, 성실성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약 예전처럼 성적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했다면 진흙 속의 진주 같은 임 군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카이스트는 지난 8월 20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일반고에 재학 중인 1백5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창의성과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발굴할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전국 6백39개 고등학교에서 1명씩 추천을 받았다.

입학사정관들은 서류평가를 거쳐 직접 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담임교사 면담 및 학생 면접을 실시하는 ‘방문면접평가’를 통해 3백명의 학생을 1차로 선발했다. 이 가운데 개별면접과 그룹토론 형식의 심층면접평가를 통과한 1백50명이 최종 합격자가 됐다. 여기에는 농산어촌 학생 15명, 저소득층 학생 15명도 포함됐다.

최명근(18·충북 증평군 형석고 3년) 군은 사교육 없이 공부한 농산어촌 합격자 중 한 명이다. 최 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를 뇌출혈로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해 고등학교 3년 내내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놓치지 않았다. 최 군이 카이스트 생명과학공학 계열을 지원하게 된 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크게 작용했다.

“심근경색, 뇌출혈 등 순환계 질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생명공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나노로봇을 만들어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습니다.”

최 군은 올림피아드 등의 수상 실적은 없었지만 큐브를 좋아해 대한큐브협회 청주지역장으로 활동했고 기록 단축을 위해 3개월 동안 밤낮없이 큐브에 몰두했을 정도로 한번 관심을 가지면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와 성실함이 입학사정관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형석고 노재전 교장은 “지방에서는 우수 학생들이 대도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 군은 지역 고등학교에서도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제는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를 거쳐 학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주관적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일은 없다. 10월 23, 24일 건국대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제 KU자기추천전형 1박2일 합숙 심층면접에서 수험생들이 입학사정관과 면접위원 앞에서 집단토론면접을 하고 있다. 연합

교육환경, 학습과정, 소질과 적성, 인성, 창의성, 성장잠재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된 지 3년째. 입학사정관제는 2008년 40개 대학에서 시작돼 올해는 1백18개 대학으로 늘어났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모집하는 인원도 3만여 명에 이르고 있어 대학 입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점수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도록 했던 우리나라 대학입시 현실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초중고교에서는 지나친 성적 경쟁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 대학은 건학이념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면서 대학의 학생 구성도 다양해졌다. 카이스트의 경우 올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67개 고교에서 첫 합격생을 배출했고, 7개 전문계고에서도 합격자가 나왔다.

경남 창원시 한일전산여자고 박지향(18) 양은 “가정형편 때문에 전문계고에 진학했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된 이래 보안 전문가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충실한 학교생활과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숙명여대의 경우 토익·토플 등 공인영어성적, 해외봉사나 외부 수상 실적 등은 반영하지 않고 학생부와 교사 추천서, 심층면접만으로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서강대도 해외봉사활동 및 사설단체 수상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성균관대는 교과 성적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교내 행사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는지를 살핀다.

입학사정관제 ‘충실한 학교생활·자기주도적 학습’ 중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올해 4월 7일 ‘입학사정관 운영 공통기준’을 발표했다.

토플·토익·텝스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실적, 영어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사교육기관의 의존성이 높은 체험활동 등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와 공인어학시험 성적, 특목고 졸업(예정)자, 올림피아드 입상 성적 등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입학사정관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자격 제한’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사교육의 컨설팅을 받아 인위적으로 꾸민 자기소개서는 평가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입학사정관들의 중론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서

자기소개서 데이터베이스(DB)를 축적해 유사·중복 문구를 검색하는 표절 검색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렇게 1차 검증을 거친 서류를 모의평가 등을 통해 전문성을 쌓은 입학사정관이 다시 검증하고, 자기소개서 대필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심층면접을 통해 진위를 재검증하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자기소개서는 평가 과정에서 결국 걸러질 수밖에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자기소개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대학 전체로 확대하고, 입학사정관 직무연수 등을 통해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표절을 적발한 사례 및 적발 노하우를 입학사정관들끼리 공유하도록 하는 등 서류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기소개서 표절 검색 시스템 확대

입학사정관제에서는 입학사정관 1명이 학생을 일대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학사정관, 교수 등 다수의 평가자가 동시에 한 학생을 평가한다. 또 학생에 대한 평가자의 평정 점수 차이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다수·다단계 평가 절차를 확립하고, 입학사정관 윤리강령 운영, 이의신청 절차 및 자체 감사절차 등 제도적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중심이 돼 매년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점검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재정지원금 회수 및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제재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학사정관의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시에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이 충분한 수의 입학사정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그 결과 현재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60개 대학의 전임사정관은 5백12명(대학 평균 8.5명), 위촉사정관은 3천8백47명(대학 평균 64.1명)으로 충분히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또한 전임사정관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및 세미나, 개별 대학의 자체 훈련 및 모의평가 등을 매년 1백 30시간 이상씩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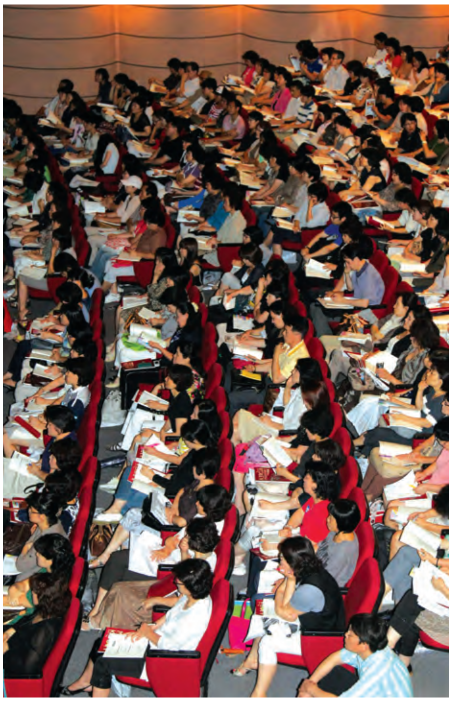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정과 교육 내용, 방법, 평가체제의 혁신을 통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 중



동아DB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충실한 학교생활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다.
따라서 고교 3년 동안 교과 성적을 잘 관리하고 교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동아DB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다. 지난 8월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열린 '2011학년도 서울지역 수시 대입설명회'.

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 활동 등에서 얻어진 경험을 학생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 지원 시스템을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더불어 대학 입학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맞춤형 진로·진학상담 위한 상담교사 1천명 배치

또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내년부터 1천명 배치할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16개 시도 교육청은 입학사정관제와 대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대입상담 콜센터에서는 진로진학 지도 교사 3백20명이 대입과 관련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김보엽 대학자율화팀장은 "입학사정관제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 합격만을 위한 '진학 상담'이 아니라 학생의 인생과 미래를 고민하는 '진로 상담'이 돼야 한다"며 "대학도 학생 선발에만 치우치지 말고 선발한 학생에 대한 연구와 추후관리 등을 통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대입상담콜센터 ☎ 1600-16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사정관제 uao.kcue.or.kr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상담센터 univ.kcue.or.kr

양정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입학사정관제, 학교생활 충실한 학생에게 유리"



전국 2백1개 4년제 대학이 모인 대학교육 자율의사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 입학전형지원실은 대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입학사정관제를 입시 선진화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발표해 대학 스스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경시대회나 어학성적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인 양정호(42) 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초중고교에 전달되면 자연스럽게 공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이 대학에 가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학사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나.

입학사정관제는 대학이 성적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을 탈피해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고려하는 선발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대학은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와 경험을 쌓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늘어나고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이 풍부해지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재정지원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의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입학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각 학교에 진학전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가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나.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을 통해 길러진 학생 선발에 초점을 맞추고 학원과 같은 사교육이 개입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공인어학성적이나 경시대회, 해외봉사활동이 전혀 입학사정관 전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사교육 유발에 대한 우려는 많이 해소됐다.

특히 입학사정관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동안 학생이 관심 분야와 미래 전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세밀하게 살피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에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입학사정관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다양한 '스펙'이 아니라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활동을 얼마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의미 있게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면접이나 서류 검토에서 대부분 확인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것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불합격된다.

학부모는 어느 누구보다 자녀의 관심과 특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녀가 원하는 직업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해 소질을 길러줄 수 있는 체험활동이나 교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야별 특화교육으로 명장 양성"

직업교육 선진화 위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적극 지원

전문계 고등학교가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된다. 예비 명장을 양성하는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형 특성화고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꿈과 의지를 가진 우수학생들이 학비 걱정 없이 직업교육을 받고 졸업 후에는 안정된 직장에서 중산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 희망 사다리'를 놓는다.



부산자동차고

자동차산업 분야의 마이스터고인 부산자동차고 1학년 학생들은 한 학기 만에 자동차 정비 기능사 및 자동차 검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교사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학기 중은 물론 여름방학 때도 쉬지 않고 강도 높은 수업을 마다하지 않은 결과다.

부산자동차고등학교 1학년생 1백14명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자동차 정비 기능사 및 자동차 검사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전원이 합격했다. 자동차를 전공하고 현장 실습을 나가는 3학년 학생들도 이루기 어려운 결과였다.

1999년 개교한 부산자동차고는 올해 마이스터고로 전환한 후 '1학년 재학 중 자동차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자동차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입학한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물론이고 방학과 휴일에도 하루 8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업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 학생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덕분에 생긴 여유시간을 활용해 하루 4시간 이상의 방과후 학교를 진행해왔다. 전문계고 특성상 활성화되지 못했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너지 효과를 냈다.

부산자동차고 이홍조(54) 교무부장은 "학생들 스스로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무엇보다 고무적"이라며 "장차 자동차산업 분야의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자동차 분야의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부산자동차고 외에도 철강 분야의 합덕제철고, 반도체장비 분야의 충북반도체고, 전자 분야의 구미전자공고 등 전국에 21개 마이스터고가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마이스터고는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하는 과도한 대학 진학 풍조를 개선하고, 산업계가 원하는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다.

학생 전원에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가 면제되고, 저소득층과 우수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또 기숙사를 제공하며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실무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체와 교육 및 취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충북반도체고에 28억원 상당의 기자재를 기증하고 기술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조선협회는 부산기계공고 등 5개교와 공동으로 교재 개발에 참여했다.

마이스터고, 산업계가 원하는 우수 기술인력 양성 목표

구미전자공고는 LG디스플레이 등 10개 기업과 취업약정을 통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약정 받은 졸업 후 평가를 통해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삼성전자도 마이스터고 학생을 삼성전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 중에서 내년 2월에 채용 예정자를 선발해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학업 보조비를 지원하고 삼성전자 현장실습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교육을 이수케 한 후 2013년 2월 졸업과 동시에 채용한다.

삼성전자 원기찬 전무(인사총괄)는 "마이스터고 학생과 같은 우수한 기능·기술인력이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실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서발전도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사원 채용 때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하기로 했다. 공기업 중 마이스터고를 포함해 실업계 고교 졸업생 채용을 정례화한 것은 동서발전이 처음이어서 다른 공기업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김규태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많은 기업들이 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협력과 채용약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마이스터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구 전문계고)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성화고는 기초생활수급 학생 비율이 전체 고교의 2배가 될 만큼 저소득층이 많이 지원하지만, 취업률은 2000년 51.4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 결과

특성화고 평균 취업률	2009년 16.7% → 2010년 21.9%(5.2%p 향상)
여수공고 취업률	2009년 14.3% → 2010년 63.1%(48.8%p 향상)
영신여자실업고 등 13개교	치과실습 기자재와 산학 겸임교사 인건비 등 5억원 지원, 취업 시 우대하는 양해각서(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대한치과의사협의회)
서서울생활과학고, 신정여상	교육과정 운영, 교재 개발, 교육장·실습재료·강사, 교육수료 학생의 SPC 취업 등 지원하는 MOU 체결 (교육과학기술부·SPC)

퍼센트에서 지난해 16.7퍼센트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특성화고가 학비 걱정 없이 취업교육을 받고 졸업 후 안정된 직장에 취업해 중산층으로 생활하는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이미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외에 26만3천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3년간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산업체 현장 연수, 해외 인턴십 등을 병행 추진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시작된 특성화고 취업기능 강화사업은 이미 결실을 얻고 있다. 여수공고의 경우 지난해 14.3퍼센트였던 취업률이 올해 63.1퍼센트로 크게 늘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조무인력 양성 특성화고 육성을 위해 영신여자실업고 등 13개교에 5억원의 치과실습 기자재와 산학 겸임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 시 우대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식품 전문기업 SPC도 서서울생활과학고와 신정여상을 제과제빵 특성화고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정 운영, 교재 개발, 실습재료, 강사, 교육수료 학생의 SPC 취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졸업자 우대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 전국 확산

정부는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특성화고 졸업자를 우대하는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경기교육청이 2008년부터, 인천시청은 올해 도입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중앙부처에서도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자의 채용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은 지난 9월 30일 전국 공업고등학교 교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2010년도 공고 졸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백2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 김환식 진로직업교육과장은 "특성화고가 취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강화되면 우수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할 뿐 아니라 학벌 중심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이혜련 기자

학생·학부모와 소통… 교사 경쟁력 UP

공립학교 교사, 수업·생활지도 등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공교육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전체 공립학교에 대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구성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맞춤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합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도 교육청, 학교 등에 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전북 교육청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을 위한 권역별 의견수렴 협의회.

"선생님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평가 제도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이 자기 개발 의지를 몸소 실천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아요."

서울 은평중학교 여정모 교감은 올 한 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성과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했다. 은평중학교는 올해 7월에 걸쳐 교사에 대한 동료교원평가와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분석을 마쳤다.

이에 앞서 이미 3월부터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 운영을 위해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을 각각 4명씩 포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 내용, 시기, 방법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발 빠르게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이 때문에 참여도가 상당히 높았다.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 개개인의 특성과 수업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얻어져 학교에선 교사들의 맞춤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교사 스스로도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돼 기존 수업지도 방식과 학생 평가에 대한 자발적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평가제도 실시 이후 자율연수계획 제출 등 자기 개발 열중"

여 교감은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 그간 관리자도 몰랐던 교사들의 새로운 면을 많이 알 수 있었다"며 "특히 수업 방법 개선 요구가 넘쳐났는데, 이 부분에서 개선점을 찾으면 앞으로 학생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일방적인 전달을 받는 방식의 수업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도서관형 분위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 교감은 "평가제도 실시 이후 선생님들은 자율연수계획을 학교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자기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교사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올해 3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11월 1일 기준으로 전체 1만1백3백66개 공립학교 중 학생 만족도 조사를 종료한 학교는 99.23퍼센트,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끝낸 학교는 99.15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동료교원평가를 마친 학교도 95.28퍼센트다. 전북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 학교의 평가가 종료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실시된 평가제도의 현장 적합성 및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실시 단계부터 중앙컨설팅단과 학부모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꾸준히 문제점 점검과 개선에 나섰다. 지난 6월 전국 20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했고, 8월엔 4개 권역별 교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학부모 모니터단 등의 의견도 받았다.

그 결과 평가 모형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우선 대상 선정에 있어서 비교과교사 평가에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자가 참여한 점이 지적됐다. 또한 동료교원평가에선 온정주의적 평가가 불가피하고 문항수 과다로 업무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도 대상 과다로 형식적인 평가가 이뤄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선 교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학생 의견에 부모 의견이 종속된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이 밖에도 ▲교사 학습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객관적 응답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생활지도 영역은 주관적 판단이 적잖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며 ▲익명성 보장 면에서 응답 결과가 노출될 것이라는 불안감에 솔직한 응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난 2010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평가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도 공동연구단을 구성했다.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연구책임자와 16개 시도 교육청이 추천한 연구자, 한국교육개발원(KEDI)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시도 공동연구단은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공동연구단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평가 모형 개선의 핵심 방향은 향후 법제화에 대비하면서 동시에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정 부분은 전국 공통의 기본 틀로 유지하되, 세부 방안에 대해선 시도 교육청,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예정이다.


동아DB

올해부터 공립학교들이 교원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의 수업지도 방식과 자기 개발 실천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평가에는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평가 결과를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틀을 제시한 바 있다.

익명성 보장 위해 NEIS 보안 인증 체계 도입

평가 세부 방법으로 특히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경우 문항수, 문항 내용 등을 간소화하고 익명성 보장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보안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학생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원평가 역시 참여자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개선방안의 시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12월 중 2011년 평가 모형안을 확정한다. 이후 평가 시행 기본 계획, 시도별 매뉴얼 제작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갖춘 평가제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알릴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교육감 협의회에서 요청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조속한 법제화'는 전 국민의 시대적 요망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강조해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 유인식 연구관은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개혁 법안의 핵심으로 학교교육 질 제고를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평가 결과에 따른 지속적인 전문성 신장 지원과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연구년제, 지원 필요 교원에 대한 능력향상연수제를 통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유재영 기자



조영철 기자

과학중점학교 시범학교인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김수연 생물교사와 생물수업 전용 과학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의 키워드 '창의+인성'

산학연 교육기부 활성화 등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지식을 기반으로 더불어 살아야 하는 미래 사회에는 창의력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돕는 산학연의 교육기부를 활성화하는 한편 학교 스스로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인성을 키우는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끌고 있다.

#1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중점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한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는 실험과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실험과 체험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도록 과학수업 대부분을 과학실에서 진행하며 1년에 5회씩 과학캠프를 운영해 관심 있는 학생들의 탐구 능력도 길러주고 있다.

또 올해 입학한 1학년생을 대상으로 연간 60시간의 과학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한편, 과학에 흥미와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다양한 '과학탐구 체험반'을 운영 중이다. 과학부, 천문부 등 과학 관련 동아리도 활성화돼 있다. 올해 이들 동아리에서 활동한 1학년생 4명은 서울특별시 과학탐구대회에서 과학고 학생들을 제치고 특상(1등)을 받았다.

잠신고는 현재 1학년생 가운데 70명을 뽑아 내년에 2학년 과학중점반 2개 학급에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2개 학급의 신입생을 과학중점반으로 별도 모집해 과학 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중점반에 배정된 학생은 3년간 45퍼센트 이상 수학, 과학 과목을 이수하며 학교가 중심이 된 다양한 과학 관련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잠신고 양덕희 교감은 "과학중점반에서는 일반고보다 많고 과학고보다는 적은 과학, 수학 교육이 이뤄지며 해당 학생들을 과학 체험활동 참여도, 과학과 수학에 대한 열의, 수업 태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중점학교가 된 후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크게 높아져 이과반을 한 학급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 서울 이화여고 김성수 국어교사는 학생들 사이에서 '이조 쌤(선생님을 뜻하는 학생들의 은어)'으로 통한다. 이조 쌤은 '이화의 조선인'의 줄임말로 김 교사가 예절을 유난히 중시해 붙은 별명이다. 수업 시작 전 그가 '차렷, 경례' 대신 '공수(拱手), 배례(拜禮)'라는 구호를 외치면 학생들은 배꼽에 두 손을 얹고 천천히 허리 굽혀 90도로 인사한다. 기본적인 예절부터 지켜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자는 취지다.

이 학교엔 '이조 패밀리'라는 모임도 있다. 옷매무새가 단정하지 않거나 복도에서 떠드는 등 예절에 어긋난 행동으로 김 교사에게 지적받은 학생들의 모임이다. 이조 패밀리 멤버들은 일주일간 오전 7시 20분에 교무실 앞에 모여 예절교육을 받는데 이때 김 교사는 10~15분간 〈명심보감〉 〈시경(詩經)〉 등에 담긴 성현들의 가르침을 일깨운다.

첨단 디지털시대를 사는 요즘 고등학생들이 이런 김 교사를 '고리타분한 선생님'으로 여길 것 같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의외다. 이 학교 2학년 김정해 양은 "선생님은 인기가 많다. 언뜻 엄해 보이지만 학생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차를 따라주며 다도예절을 가르쳐주시기도 한다. 세심하게 학생들을 챙기는 모습에 감명받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창의'와 '인성'이 교육계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올랐다. 창의성과 인성은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되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자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지식 기반 사회의 국가경쟁력은 결국 인성이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의 경쟁력이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백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은 창의성(71퍼센트), 전문성(65퍼센트), 도전정신(59퍼센트), 도덕성(52퍼센트), 팀워크(43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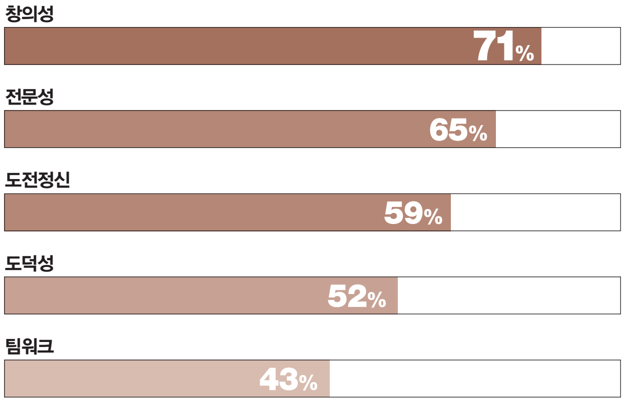
인성 뒷받침된 창의적 인재가 국가경쟁력 좌우

하지만 기존 학교교육으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과도한 학습 분량, 획일적인 교육 내용, 주입식 교육방식 같은 고질적 문제는 그간의 개선 노력에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도 교과과정과 구분해 단편적으로 실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감이 결여된 이론 중심의 반복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흥미도 높지 않다. 2003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세계 3위인데 반해 수학 흥미도는 31위였다. 2006년 PISA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 성적은 11위였으나 과학 흥미도는 55위로 저조했다.

정부는 먼저 이 같은 학교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높은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1백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8년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1백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복수 응답을 적용해 1백대 기업 중 해당 역량을 원하는 기업의 수를 백분율로 환산했다. 따라서 창의성은 1백대 기업 중 71개 기업이 원하는 역량으로 보면 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기당 과목 수를 줄이고, 교과별 수업시수를 20퍼센트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블록타임제 등으로 심도 있는 학습도 가능해졌다. 내년 말부터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해 배워야 할 교과별 학습 내용도 20퍼센트 이상 감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교과별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 학습, 토론·실습학습, 역할놀이 등 다양한 수업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장 교사를 주축으로 교과별 창의·인성 수업지도안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 체험활동 위해 기부운동 전개

이와 같은 수업 방법은 올해 2학기부터 교과중점학교 등 2천7백 개 학교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까지 전체 초중고교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각종 물적, 인적자원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교육기부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을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 권지영 사무관은 "연말에는 창의·인성교육 우수학교를 '1백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라며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길러내려는 정부와 학교, 기업의 노력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김지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육성과 ☎ 02-2100-6288

EBS 강의만으로 대학 갈 수 있다니까!

2011학년도 수능, EBS 연계율 70%… 특기적성 개발하는 방과후 학교도 지원

11월 18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EBS 교재 및 강의 연계율은 70퍼센트가 넘었다. 정부는 EBS 교재나 강의를 활용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대 인문계열 1학년 이대보(19) 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은 중위권이었다. 모의고사에서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은 4등급, 수리영역은 3등급이었다.

광주광역시 정광고등학교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했던 이 군은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다 크게 다쳐서 입원했다는 사실을 일주일이나 지나서 알게 됐다. 이 군은 "그때 내가 우리 집을 이끌어갈 기둥이 돼야 한다는 걸 깨닫고 멀어졌던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기초도 부족하고 학원에 다닐 형편도 안 되는 처지에서 실낱같이 비춰진 유일한 빛은 EBS였습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매일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1, 2시간씩 컴퓨터로 EBS 강의를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EBS를 방송해줘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책과 담을 쌓아온 터라 언어영역에서 독해력이 현저히 부족했다. 한동안 공부를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았지만 계속 EBS 강의를 들으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법부터 실질적인 독해방법까지 알게 됐고, 나중에는 지문을 보지 않고도 문제지 사이에서 답을 도출해내는 언어영역의 '고수'가 됐다.

이 군은 "고 2때 11월 모의고사에서 언어영역 98점을 받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었다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했다.

영어는 EBS만의 특장점인 대학별 고사 강의와 학습 Q&A를 활용했다. 이 군은 경찰대 강의를 듣고 10문제를 풀면 2문제밖에 못 맞출 정도의 실력에 자존심이 상해 분풀이하는 마음으로 학습 Q&A에 계속 질문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친절하게 답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동아DB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수능 교재의 가격을 시중 교재 가격 대비 65퍼센트에서 58퍼센트로 내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자녀 15만명에게는 무상 제공하고 있다.

사교육비 경감 위해 EBS방송 등 수능 강의 서비스 제공

"영어듣기에서 저는 문제만 듣고 그 이후로는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어요. 문제는 한국어로, 대화는 영어로 나오기 때문이죠. 급식 먹을 때나 자투리 시간이 날 때마다 문장은 물론 대화순서까지 기억할 만큼 듣고 또 들었습니다. 1회에 1백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어느 때부턴가 '귀가 뚫렸다'는 느낌이 왔고, 고 2 때 9월 모의고사에서 드디어 영어 만점을 받았습니다."

수학은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제, 유제, 연습문제, 1등급 고난도 문제를 차례대로 풀었다. 이 군은 "강의를 들으면서 '수능에 최적화된 풀이'를 강조한 선생님의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군더더기 없이 답을 도출해내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 2 때 11월 모의고사를 보고 가채점을 하면서 이 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전부 동그라미였다. 드디어 만점을 받은 것이다. 이 군은 그때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희열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군은 수능 강의뿐 아니라 입시정보도 모두 EBS에서 얻었다. 또 EBS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한 달에 한 번씩 치렀다. 이는 배운 것을 점검



EBS

EBS 수능 강의는 6단계의 수준별 강좌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강사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강의 중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질문을 올리면 강사가 24시간 내에 답변을 올려준다.

하는 동시에 제대로 된 실전 연습을 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보면서 "'이 문제는 EBS 〈파이널〉에 나왔던 건데, 이건 〈수능특강〉에서 봤던 거야' 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졌다"며 후배들에게도 EBS 수능 교재와 강의로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날아오르려면 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꿈을 실현해줄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제 꿈에 날개가 된 것은 EBS였습니다. 밑바닥 성적에서 나조차 믿기 힘든 전교 1등과 서울대 입학이라는 꿈을 이루게 해주었으니까요."

이 군의 경우처럼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하지 않아도 EBS만 잘 활용하면 학교 성적은 물론 수능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 11월 18일 치러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도 70퍼센트 이상 EBS 교재와 연계돼 출제됐다.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인 안태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저소득층 및 교육 소외계층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EBS 교재와의 연계를 확실히 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5개 영역에서 EBS와의 연계율이 각각 50퍼센트와 60퍼센트였다"며 "이를 수능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였고, 연계 영역도 직업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으로까지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70퍼센트 연계의 의미는 EBS 교재에 나온 문제의 70퍼센트가 그대로 출제됐다는 것이 아니라 EBS 수능 교재의 개념, 원리 등을 이해하면 수능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도록 출제했음을 말한다.

TV 입학사정관 · 온라인 입시상담 등 입시정보 제공 강화

연계방식은 EBS 수능방송과 교재에서 다루어진 지문(작품)을 활용하거나, 지문의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거나, 문항의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해외 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면 이로운 점을 찾는 문제가 기업결합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묻는 문제로 바뀌어 나오는 식이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EBS 방송 및 인터넷(EBSi)

동아DB



방과후 학교는 EBS 강의와 함께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아DB



방과후 학교는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을 통해 수능 과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능 강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에게 보충학습 기회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3월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EBS 수능 강의와 대입 수능 간의 연계 강화 및 상호협력 제도화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수능시험 준비가 가능하도록 EBS 수능 교재와 수능시험 간의 연계율을 70퍼센트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EBS 수능 강의의 질이 크게 좋아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수능 강의를 이용하는 학생 95.5퍼센트와 학부모의 91.5퍼센트는 수능 강의가 수능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BS 수능 강의를 크게 개선했다. 수험생들에게 실력을 인정받는 '스타 강사'를 지난해 20명에서 올해에는 52명으로 늘렸고, 우수교사 5명을 EBS에 파견해 교재를 개발하고 EBS 강의에 전념하도록 했다.

수준별 강좌를 지난해 3단계에서 6단계로 확대하고 개념이해, 문제풀이, 요약강의 등 다양한 맞춤형 강좌를 제공했다. 또 3백40명의 Q&A 튜터 및 37명의 대학생 튜터를 통한 질의답변 및 학습정보를 올렸다.

인터넷사이트는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50분 고화질 동영상 강의를 1분 안에 받을 수 있도록 내려받기 속도를 높였다.

EBS 교재 가격을 시중 교재 대비 65퍼센트 수준에서 58퍼센트 수준으로 내렸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의 자녀 15만명에게는 EBS 교재 61만 부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수능 강의뿐 아니라 입시정보 제공도 강화해 TV 입학사정관, 온라인 입시상담, 고교·지역 방문 입시설명회 등을 실시해 EBS만 활용하면 학원 수강이나 입시 컨설팅이 필요 없도록 했다.

이렇게 EBS 수능 강의가 개선되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 8월 E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학생 1천명, 학부모 1천명, 교사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BS 수능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학생들의 EBS 수능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95.5퍼센트였다.

학부모의 94.1퍼센트는 EBS 수능 강의와 수능시험 연계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91.5퍼센트는 EBS 수능 강의가 자녀의 수능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고, 77.3퍼센트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93퍼센트의 교사가 평소 EBS의 수능 교재와 강의를 활용한다고 응답했고, 95.4퍼센트는 EBS 수능 강의가 수능 성적 향상에 영향력이 있으며, 92.7퍼센트는 EBS 수능 강의를 학생들에게 권유한다고 대답했다.

방과후 학교 시행 이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6% 줄어

교육과학기술부 이러닝지원과 박성동 사무관은 "앞으로 우수교사 파견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EBS 수능 강의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공교육 보완 강화 차원에서 현재 5천여 편의 내신강좌 콘텐츠를 7천4백여 편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EBS에 구축해놓은 29만 문항의 문제은행을 교사들



방과후 학교는 교과학습뿐 아니라 특기적성까지 챙김으로써 농산어촌 지역의 부족한 교육여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EBS 강의가 사교육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원묵고등학교에는 '아침학교' '방과후 학교' '방학중 학교' '토요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 속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가 운영된다.

'아침학교'는 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인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운영되며, 학생들은 원하는 강좌를 골라 들을 수 있다. 학습도움방에서 국어, 논술, 영어, 수학 등 학과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도서관에서 권장도서를 읽거나 학습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

또 컴퓨터실에서 EBS 강의를 듣거나 토익·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다. '미드시트콤반'도 있어 미국 드라마나 시트콤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체육관에서는 뇌호흡을 하며 집중력을 기르거나 가야금, 스포츠댄스 등 특기를 익히기도 한다.

'토요학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토요 휴업일에 운영된다. 전시회, 뮤지컬 등을 관람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는 교과 심화반과 진로 탐색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정규수업이 끝난 후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도 학생들이 스스로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강좌는 학과 수업과 연계한 강좌뿐 아니라 가야금, 바이올린, 풍물, 농구, 테니스 등으로 다양해 연간 2백40여 개 강좌가 운영된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지난해 방과후 학교 강좌 참여율은 1백71퍼센트로 학생 1명이 2개 이상의 강좌를 선택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88퍼센트의 학생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응답했다.

원묵고 박수천 수석교사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아이들이 학원보다 학교를 더 신뢰한다"며 "특히 3학년의 경우 '교과 도움방'을 운영해 성적도 많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EBS 강의와 함께 사교육을 줄이는 일등공신이 방과후 학교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4백57개 방과후 학교 36만3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방과후 학교 실시 후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6퍼센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누구나 사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하고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별로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에는 전체 1만1천2백31개 초중고교 가운데 99.9퍼센트인 1만1천2백2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49만4천9백65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40%까지 확대키로

학생 1인당 약 3.4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월 평균 부담액은 2만9천2백64원으로 사교육비와 비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자유수강권을 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다.

또 4천8백명의 학부모가 방과후 학교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관리, 학생 상담 및 출결 관리, 프로그램 참여 수요 조사 등을 담당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도시 저소득지역 및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권역화해 중점학교로 지정하고 주말, 방학 등 틈새시간에 인근의 협력학교 학생들이 중점학교에 찾아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전국 10개 권역의 지역 연합 방과후 학교가 본격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방과후 학교의 내실화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의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곽재규 사무관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연간 36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로 확대하는 동시에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이혜련 기자

"학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해봐"

엄마품 돌봄 서비스·학자금 지원 등 친서민 교육정책 강화

서민들에게 자녀 양육과 교육은 희망이자 마음의 짐이다.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에 흐뭇해하면서도 양육과 교육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이 현실적으로는 큰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마음 편히 자녀를 기르고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에 자리한 서명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중 한부모가정, 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자녀가 절반에 육박한다. 이 학생들은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의미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학력은 처지고 문화생활의 테두리 밖으로도 밀려나 있을 수밖에 없다.

겉도는 학생들이 늘어나자 서명초교는 지난해부터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지원을 받아 보육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육교실은 11개, 방과후 프로그램은 36개다. 초등학교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특히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의 학생들을 학교 차원에서 돌봐주는 보육교실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는 주간 보육교실은 7개반에서,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야간 보육교실은 4개반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육교실에서는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육 프로그램이 보육강사에 의해 진행되며, 원어민 영어수업 및 각종 체험활동과 독서논술 등의 특기적성수업도 한다. 또한 부산교육대 학생들이 직접 아이들의 '멘터'로 나서 기초학습 교육과 상담활동을 한다.

내년 3월부터 학교·유치원서 돌봄교실 시범사업

야간 보육교실의 경우 사실상 연중무휴로 정규 수업 및 방과후 활동, 가정의 역할까지 보장한다. 주간 보육교실 지원 외에 다양한 야외 체험활동과 안전한 귀가까지 학교가 책임져주기 때문에 부모의 보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서명초교 김정수 교감은 "야간 보육교실에 참여하려는 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며 "현재 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가 있다 해도 어버이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빈곤해지고 야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막는 데 야간 보육교실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명초교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사업에 발맞춰 보육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체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아침 보육교실도 신설한다. 또한 원어민 영어강사가 지도하는 영어 프로그램도 늘린다.

이처럼 정부는 서민들이 자녀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더욱 확대한다. 특

부산 서명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교육과정과 연계한 주야간 보육교실을 운영 중이다.



서명초등학교

히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학생을 위한 아침·저녁 온종일(오전 6시 30분~밤 10시) 돌봄 서비스를 특화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0월 이러한 내용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추진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2백58개 시군구와 연계된 교육지원청 중 농산어촌 등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의 교육청 50개 내외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교사 인건비, 운영비(저소득층 식비, 교통비 포함)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50개 내외 시군구의 1천여 개 학교 및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침 돌봄과 오후 돌봄, 저녁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다. 각기 돌봄 서비스마다 교육(Edu)과 돌봄(Care)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음악활동, 특기적성교육, 창의학습, 미술활동, 기초학습(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으로 이루어진다. 돌봄 프로그램은 창의력학습, 교과학습, 각종 놀이활동, 특기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장인자 연구사는 "소외계층 자녀의 보호·교육 지원 확대로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친서민 교육복지정책 구현이 가능하게 됐다"며 "종일 돌봄 교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면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 지원도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요건을 낮춘 제도 역시 활성화시킨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일반상환대출, 등록금+생활비)는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대출 즉시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든든학자금, 금리 인하·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그러다 보니 학기 중에 이자 마련을 위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 학자금 대출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가 2006년 6백70명에서 올해는 7월까지 2만4천9백1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1월부터 대학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일반상환대출은 4천만원까지)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는 '든든학자금' 제도를 새로 실시했다. 거치 기간의 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자를 선납했다.

든든학자금 대출 현황(2010년 9월 30일 기준)



114,722명
2010년 1학기



117,168명
2010년 2학기

일반상환대출과 든든학자금 대출 비교

구분		일반상환대출	든든학자금
공통점	지원 범위	등록금+생활비	
	상환 주체	학생 본인	
	대출금리 결정 방식	재원조달 금리를 고려하여 매학기 결정 (2010년 2학기 5.2%)	
	대출 재원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	
차이점	대출 한도	4000만원(대학)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	등록금 전액 (생활비 연 200만원 한도)
	지원 기준	학점 기본조건(C학점) 저신용자(신용 9, 10등급) 대출 제한	학점 기본조건(B학점) 경제적 요건(1~7분위)
	상환	10년 거치, 10년 상환	일정 기준소득 이상 발생 시
	상환액	일정액 분할상환 방식	기준소득 초과 소득의 일정률(20%)
	이자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거치기간 중 무이자·저리 대출 시행	이자 지원 없음
	이자 부담	대출 즉시 이자 납부 (의무불이행 시 연체이자율 16%)	일정 기준소득 이상 발생 시까지 이자납부 유예

올해 2학기엔 일부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금리를 1학기 대비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연 5.2퍼센트로 낮췄으며, 한국장학재단과 건강보험공단 간 전산망 구축을 통해 대출 심사기간도 10일에서 2일로 단축했다. 이 때문에 1학기에 '소득분위 없음'의 사유로 일반상환대출을 받았던 학생 중 8만7천여 명이 든든학자금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됐다.

이 덕에 2학기 든든학자금 이용 실적도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2학기(9월 20일 기준) 학자금을 대출한 36만4천5백56명(1조2천8백77억원) 가운데 11만7천1백68명이 든든학자금 제도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 이는 1학기의 11만4천7백22명보다 2.1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생 장학 홍보대사, 대학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든든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학교팀 ☎ 02-2100-641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장학지원과 ☎ 02-2100-6277



KOICA는 2004년 페루 꼬라오 마을에 도자기 학교를 세워 주민 소득을 높였다. KOICA는 지난 18년간(2009년 기준) 70여 개발도상국에서 4백95개 사업을 벌였다.

"세계 각국에 나눔의 발자국 찍어요"

글로벌 나눔 선두주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전쟁과 빈곤으로 쓰러져가던 대한민국을 살린 건 세계 각국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나눔과 베풂의 인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설 수 있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꼬라오 도자기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남미 페루의 잉카 문명과 한국 도자기 기술이 만났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한 고대 잉카 제국의 중심지 페루 쿠스코 근처 마추픽추로 가는 길목에 세워진 '꼬라오 도자기 학교'가 그 값진 성과다.

주민 3천여 명이 감자 농사로 가난하게 살아오던 꼬라오 마을이 2004년 도자기 마을로 다시 태어난 것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과 노력 덕분이다. 잉카 유적지 근처에 위치했지만 별다른 관광수입이 없던 이 마을을 눈여겨본 KOICA 해외봉사단원이 고려청자 기술을 기반으로 잉카 문양이 들어간 전통 그릇 만드는 법을 알렸다.

물이 새거나 강도가 약해 잘 깨지던 현지 도자기의 품질은 금세 높아졌고 꼬라오 마을의 도자기는 유명 관광기념품이 됐다. 마을 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5배 이상 올랐다.

KOICA, 18년간 70여 개발도상국에 495개 사업 지원

필리핀에서는 'KOICA 쌀'이 최고급 쌀로 인정받는다. 2006년 필리핀 마닐라 외곽 오로라주에 KOICA가 한국형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건설해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자진해서 'KOICA 쌀'이라는 브랜드를 붙였다.

필리핀 오로라주 RPC는 생산된 벼의 손실률을 줄여 쌀 부

족 문제를 해결하고 쌀 품질을 높이는 대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KOICA에 필리핀 주요 곡창지역 4곳에 추가로 RPC를 건립해달라고 요청했고, 2012년까지 1천3백만 달러를 투입하는 한국형 RPC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KOICA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 곳곳에 나눔의 발자국을 찍고 있다. 페루 도자기 학교, 필리핀 KOICA 쌀은 1991년 창립 이후 계속돼온 KOICA 봉사활동의 단적인 예다.

지난해 펴낸 〈지구촌에 새긴 KOICA의 발자국〉이란 1천 쪽 분량의 두꺼운 책을 펼치면 KOICA가 18년간(2009년 기준) 70 여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4백95개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역사서나 다름없다.

국내 청·장년 인력, 개발도상국 파견해 나눔정신 실현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원조공여국'의 길을 걷게 됐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1945년부터 50년간 2백3억 달러의 원조 수여가 밑바탕이 됐다. 물론 우리나라가 받은 무상원조의 70퍼센트가 광복 때부터 1960년 사이에 이뤄졌고 유상원조가 대부분이었지만 세계 각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위상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구촌 모두가 우리나라의 DAC 가입을 환영했던 이유는 개발도상국의 아픔을 고스란히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데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연이어 겪고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을 추진해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치러내고 DAC 가입까지 하게 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DAC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창립 이후 지속적인 글로벌 나눔활동을 펼쳐온 대외 무상원조기관 KOICA의 활동도 더욱 주목받고 있다. KOICA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유엔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빈곤퇴치 등을 비전으로 8가지 사업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경제성장 및 빈곤 퇴치의 기본조건인 교육 ▲산모 및 영·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전염병을 예방하는 보건의료 ▲정부의 책임성과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는 행정제도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농촌 개발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 정보통신 ▲환경오염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환경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는 산업에너지 등 7개 분야 ▲저탄소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등이다.







▲▲KOICA는 국내 청·장년 인력을 개도국에 자원봉사자로 파견해 나눔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2006년 필리핀에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건설해 가격이 3분의 1이상 저렴한 'KOICA 쌀'을 생산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EACP는 지구촌 환경오염을 막는 녹색기술을 알리는 녹색원조의 일환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고 있다. 이렇듯 8개 사업 분야와 관련된 1백70개 프로젝트가 5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로써 KOICA 출범 당시 1백74억원에 머물렀던 무상원조 규모는 올해 4천3백억원으로 늘었다.

KOICA는 국내 청·장년 인력을 개도국에 파견해 나눔정신도 실현하고 있다. 1990년 아시아 4개국 44명으로 시작한 해외봉사단은 현재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포함한 45개국 1천7백여 명으로 늘었다. 43개국에 위치한 KOICA 해외사무소에 파견된 68명의 직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해당 국가에 적합한 개발원조 지원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0.25퍼센트로 높이면 늘어나는 무상원조 규모만큼 개발 원조를 주도해온 KOICA의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KOICA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KOICA ODA 교육원을 개소했다. 그동안 KOICA가 축적해온 수많은 개발협력 사례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형 ODA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가 양성이 가능해져 원조공여국으로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국제협력단

지난 10월 KOICA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아시아 20개 개도국 공무원 31명을 초청해 녹색기술과 관련된 물 분야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기후변화 대응 · 녹색성장 실천 "Me First"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에 2012년까지 2억 달러 지원

지구촌 환경오염이 세계 각국의 걱정거리로 떠오르면서 녹색성장을 향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녹색기술로 환경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개발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을 이끌어 녹색원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커다란 도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 공동운명체로 살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 도전 앞에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2008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아시아의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주시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현재 기후변화로 야기된 지구 환경오염은 심각하다. 지난 1백 년간 지구 평균온도가 섭씨 0.74도 상승했고 앞으로 1백 년 안으로 해수면이 59센티미터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온도 변화와 해수면 상승만큼 두려운 것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다. 지난 10년간 기후위기지표에 따르면 순위 10위 안에 드는 나라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다. 지리적으로 기후변화의 위협을 받는 것이 일차적 원인이지만 홍수나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나 재정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큰 문제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st Asia Climate Partnership)'을 마련했다. '내가 먼저(Me First)' 정신을 바탕으로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EACP에 정부는 2억 달러를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지원한다.

'내가 먼저' 정신으로 지구촌 기후변화에 대응

EACP 시행 첫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맡았지만 국제개발협력 경험이 풍부한 한국국제협력단이 지난해 이를 이어받았다. 현재 10개국에서 21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KOICA 기후변화환경1팀 한근식 과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개발원조, 즉 녹색기술을 전파하는 녹색원조만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피해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개도국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ACP는 동아시아 지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원조 지원국으로 아시아를 택한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기초 인프라 부족으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자연재해 대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는 우리나라 이웃 국가들로 이뤄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을 도모할 때 국제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원조로 주목받는 EACP는 국가나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개도국에 필요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KOICA 조사단이 검토한 뒤 정부 간 조율에 따라 착수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 EACP의 5대 중점 분야는 ▲물 관리 ▲폐기물 ▲저탄소 에너지 ▲저탄소 도시 ▲산림과 바이오매스 등으로 이 중 가장 큰 규모로 시행되는 물 관리 분야의 물 랜드마크 사업은 아시아 개도국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EACP 물 랜드마크 사업은 몽골, 아제르바이잔, 필리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물 랜드마크 사업을 담당하는 KOICA 기후변화환경1팀 박희수 박사는 "인간이 살기 위해선 물이 꼭 필요하듯 개도국이 1순위로 꼽는 사업도 물과 관련된 사업"이라며 "7백80억원을 지원해 대규모의 통합적인 물 관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물 랜드마크 사업은 개도국의 주요 산업인 농업에 안정적인 용수를 제공해 식량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녹색기술 수용할 인프라 구축으로 경제개발 실현

물 랜드마크 사업 중 하나인 몽골 울란바토르 뉴타운 용수 공급 및 물 이용 효율화사업은 도심지역 물 부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최근 한파로 유목민이 급증해 용수 부족에 시달려온 몽골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용수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아프셰론반도 재생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은 물 랜드마크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차지한다. 박희수 박사는 "아제르바이잔 상하수도 시설과 대체 용수개발을 위한 하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해 30여만 명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KOICA가 주도하는 EACP는 녹색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특히 개도국에서 화석에너지에 의존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풍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알리는 저탄소 에너지 분야 사업 수가 8개로 가장 많다.

KOICA 기후변화환경1팀 임소영 박사는 "스리랑카의 5백킬로와트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이 분야 사업 중 속도가 빠르고 호응이 좋다"며 "현지 일자리 창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이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대외 무상원조 프로젝트

순번	대상국	프로젝트 내용	선정 연도
1	몽골(5)	몽골 울란바토르 뉴타운 용수 공급 및 수자원 이용 효율화사업	2010
2		광산 피해 방지 및 복구 시스템 구축사업	2010
3		바룬우루트시 난방 및 온수공급 시스템 구축사업	2009
4		바얀누르지역 호수 및 수자원 복원사업	2009
5		울란바토르시 도시 폐기물 재활용시설 건립사업	2009
6	베트남(3)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2009
7		호치민시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사업	2009
8		유해폐기물 통합관리 전자인계 시스템 구축사업	2009
9	인도네시아(3)	팜오일 폐잔재 활용 바이오에너지 및 부산물 생산사업	2009
10		산림 바이오매스 개발모델 협력사업	2009
11		연료전지 활용 발전소 시범사업	2009
12	필리핀(3)	필리핀 농업용수 확보 및 홍수 피해 저감을 위한 소규모 저류시설 건설사업	2010
13		보홀지역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연구센터 건립사업	2009
14		목재펠릿 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사업	2010
15	스리랑카(2)	통신해양기상위성 데이터 수신 분석 시스템 개발사업	2010
16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2009
17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아프셰론반도 재생 수자원 개발 중심의 물 관련 복합사업	2010
18	캄보디아	독립형 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2009
19	타지키스탄	흐름식 수력발전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시범사업	2009
20	방글라데시	태양광 관개펌프 및 홈시스템 지원사업	2009
21	피지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사업	2009

※ 총 10개국 21개 사업 진행 중

이 밖에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를 돕는 폐기물 분야, 그린빌딩 건축과 스마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저탄소 도시 분야, 아시아 열대우림의 황폐화를 막는 산림과 바이오매스 분야 등에 EACP가 추구하는 녹색원조의 손길이 닿고 있다.

KOICA는 EACP의 녹색기술을 더 많은 국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동아시아 그린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시아 개도국 20개국의 수자원 담당 공무원 31명을 초청해 우리나라 물 관리 분야 보유 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공유했다.

EACP 홍보를 담당하는 KOICA 기후변화환경1팀 조영리 홍보관은 "EACP 프로젝트는 한국형 원조를 대표하는 녹색원조의 시발점"이라며 "KOICA는 EACP와 연계된 연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원조공여국, 이제는 녹색 희망 건넬 때"

'코리아 이니셔티브' 앞장서는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올해로 창립 19년째를 맞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대한민국을 '원조공여국'으로 이끄는 견인차다. '녹색원조'라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새기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박대원 KOICA 이사장을 만났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발 의제'의 성과입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성장 잠재력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이끌어낸 것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박대원(63)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로 우리나라가 '원조(援助)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거듭났다.

박 이사장은 "한국형 원조는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경제국에서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모델이 경제발전의 기틀이 없는 개도국에 긍정적인 원조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는 의자 옆에 놓인 지구본을 둘러보며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처럼 반세기 만에 우뚝 선 국가는 없다"며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희망의 등대"라고 말했다.

2008년 개도국 봉사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지원 등을 주로 하는 대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 취임한 박 이사장은 이전까지 33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희망의 등대"

그중 알제리 대사 재임 시절 펴낸 〈알제리 2028, 부자 나라 부자 국민〉(2005)은 그의 원조 전문가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알제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투자가 필요하고 국가기간시설을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다. 결국 알제리 정부는 박 이사장의 조언대로 국가기간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중해의 1등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폭넓은 해외무대 경험을 토대로 박 이사장은 한국

KOICA는 70여 개도국을 대상으로 교육·보건의료 분야 등 다양한 무상원조 사업을 펼쳐왔다. 2007년부터 3년간 3백만 달러를 투입한 라오스 교과서 보급 프로젝트(왼쪽)와 2007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블랙라이언병원 의료봉사는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동아DB





형 원조의 강점을 부각하고 있다. 6·25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농촌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일어서기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요건이었던 농촌 소득증대와 교육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50킬로미터 떨어진 캄퐁참도 바테이군의 농촌종합개발사업과 라오스 교과서 지원사업 등이 한국형 원조의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 시스템 개선, 직업교육시설 확충,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원조공여국으로 발돋움 위해 개발원조 전문가 육성 시급"

박 이사장은 11월 16일 방한한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을 만난 소감을 밝히면서 "그동안 페루 수도 리마의 빈민가 산모병원을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시설 건립과 농업기술 이전 등에 무상원조를 해왔다"며 "페루에서는 이제 '꼬레아' 하면 '도움을 주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KOICA 제1수칙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원조'처럼 우리가 받았던 도움을 그대로 전하니 코리아 프리미엄까지 드높이게 된 뿌듯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이제 기존 무상원조의 범위를 뛰어넘어 한국형 원조의 새로운 획을 긋고 있다. 환경오염을 막고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녹색원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에너지관리공단의 바통을 이어받아 시작한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EACP)'이 그 예다.

박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에 지원을 집중해 고통 받는 개도국의 피해를 줄이고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특히 최근 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해 기후변화로 몸살을 심하게 앓는 아시아지역을 그 대상지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국제적 추세다. DAC 회원국 중 기후변화 대응 개발원조 비중은 전체 공적개발원조(ODA) 중 최대 11퍼센트에서 최소 2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우리나라는 일본(11.3퍼센트), 덴마크(11.2퍼센트)에 이어 세 번째(11퍼센트)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2012년까지 2천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EACP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일석이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농촌 소득증대에 영향을 끼치는 농촌개발사업의 물 관리 분야만이 아니라 저탄소 에너지 분야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는 친환경 녹색

조영철 기자



박대원 이사장은 "환경오염을 막고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녹색원조야말로 기후변화로 고통 받는 개도국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술을 전파한다. 그는 "EACP와 같은 녹색원조 모델이 지속돼 개도국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원조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회의인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LF-4)가 열린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이슈를 논의하는 장(場)으로 우리나라 원조의 강점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조공여국으로 더욱 발돋움하기 위해선 개발원조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자원봉사자 수가 세계 3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에서 국제원조를 지원하는 개발원조 전문가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외봉사 경험을 살리고 이론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 블루오션인 개발원조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사는 지혜'를 알리고 싶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소외계층에 나눔의 불빛

미아 찾기·일자리 제공 등 실천으로 보여주는 공기업 나눔경영

나눔의 물결은 공기업에도 일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그 어떤 조직보다 절실히 강조해야 하는 공기업의 나눔경영은 그래서 실천력이 높다. 이벤트성보다는 각 공기업의 고유 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이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접목되고 있다.

K water

'맑은 물 네트워크' 기획해 도시 소하천 수질 개선 앞장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하면 떠오르는 게 물이다. 세계 최상의 물 서비스 종합기업을 표방하는 수자원공사는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물 관련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세계 오지 마을에 급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것이다. 올해는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맺고 비엔싸이, 후와이응암 등 2개 마을에 2천5백여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50톤 규모의 물탱크와 9천50미터의 관로를 설치했다.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4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한 결과다.

김건호 사장은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해당 국가와 현지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6년 타지키스탄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동티모르,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식수 부


K-water

지난 8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라오스 현지 주민들에게 먹는 물 수질을 측정하고 난 뒤 결과를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전력 임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김치를 담그고 있다.

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 국가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댐 상류지역의 주민을 위한 의료·교육 지원책도 운영 중이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 고령 인구가 20퍼센트를 넘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고립돼 있어 도시지역과 교육 격차가 생기는 데 착안한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에도 '열린의사회'와 함께 경남 진주시 남강댐 인근 지역 주민 2백50명에게 한방, 치과·산부인과 진료를 했다. 의료봉사활동은 올해 10개 댐 주변 지역 거주자 4천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다.

세계 오지 마을에 급수시설 무료 설치

댐 주변 학교에선 원어민 영어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2007년 4월 경북지역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지난해엔 19개 댐 주변 87개 학교에서 4천5백57명이 이 수업을 들었다. 최근에는 사회공헌활동의 영역을 환경으로까지 넓혀 하천 수질 개선 문제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맑은 물 네트워크'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전국의 도시 소하천 수질 개선에 나서고 지역사회와 함께 '맑은 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글·전재호(조선경제i 기자)

KEPCO 전국 생계곤란 보훈가족 1만4천5백가구에 나눔 전해

호국보훈의 달인 지난 6월, 한국전력 임직원과 노조 간부 등 50여 명은 국가유공자 요양시설인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목욕과 식사 돕기, 청소 등 봉사활동에 나섰다. 6·25전쟁 참전용사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공기업으로서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는 생각에서다.

이뿐만 아니다. 한국전력은 1백99개 사업소 1천6백여 명의 봉사단원이 참여해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5천7백9가구와 관련 단체에 성금 2억원을 전달하고 전기설비 점검 및 수리 같은 한전 특유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전력이 나눔의 손길을 전한 전국의 생계곤란 보훈가족은 1만4천5백7가구다.

한국전력의 사회공헌활동 모토는 '어두운 곳을 아낌없이 밝히는 사랑의 불빛'이다. 이를 계기로 2004년 5월 '한전사회봉사단'을 만들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미아 찾기'도 그런 노력 중 하나다. 전기요금 청구서에 미아 사진 3백83명을 실어 지금까지 1백6명의 미아가 소중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나눔봉사단'에 참여한 임직원들이 지난해 11월 저소득층을 위해 연탄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가족을 찾았다. 전국 6개 지역 한국전력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종예방 교육 프로그램인 '빨간모자 꼭꼭이 막대 인형극'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백24회의 공연을 통해 2만8천7백68명의 어린이가 관람했다.

전국 18개 공부방 학습 지도 · 전기설비 보수

전국 18개 공부방 어린이들의 학습지도 및 노후 전기설비 보수를 했고 지방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해 매년 장학금과 교육 기자재를 기증하고 있다. 또 전국 1백75개 자매결연마을 이외에도 송전설비 인근 농어촌 마을의 전기설비 보수, 건강 검진, 일손 돕기 등에도 나서고 있다.

헌혈 캠페인도 벌인다. 2007년 1천3백55장, 2008년 1천90장, 지난해 1천1백80장의 헌혈증서를 한국혈액암협회에 기부했다. 복합문화공간인 '한전아트센터'의 객석을 문화소외계층에 무료로 제공하는 '객석 기부제'를 통해 5천1백1명에게 공연을 관람케 했다.

한국전력 박래용 홍보실장은 "우리나라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남다르게 느끼고 있다"며 "평소 손길이 잘 닿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글 · 이성훈(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LH

공공임대아파트단지에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이는 사회공헌활동은 이벤트성보다 공사가 진행하는 사업과 사회공헌활동을 직접 접목한 것이 특이하다.

LH는 국내 최초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에 '마을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형 사회적기업'이란 공공임대단지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만들고, 이 기업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복지도 실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아동청소년진로교육센터 등이 LH가 짓는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LH는 올해 7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인 '함께 일하는재단'과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이를 위해 전국 임대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달여

간의 공모를 거쳐 청주 성화·가경지구, 대구 율하지구, 시흥 능곡지구 임대아파트단지 등 3곳을 사회적기업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LH는 이들 3개 단지에 7개월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 경영 컨설팅을 받아 임대아파트단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함께일하는재단'과 업무협약… 저소득층에 일자리 제공

LH 관계자는 "임대아파트 단지에 마을형 사회적기업이 생기면 한 곳당 20명씩 6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루 평균 1백20명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또 간부 직원들이 임금 일부를 반납해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간부 직원들이 임금을 반납해 모은 32억원으로 저소득계층 융자사업을 벌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소액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위해 LH의 2급 이상 임직원들이 올 연말까지 15개월 동안 급여 일부를 반납해 매월 2억원씩을 조성할 계획이다. LH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나이가 많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노후주택 보수사업, 친환경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사업을 펼치고 있다.

글 · 이석우(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TS 교통안전공단

'로드서포터스'로 운전자 2차사고 예방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1981년 탄생한 교통안전공단의 사내 전산망은 직원들의 크고 작은 사회봉사활동 소식으로 늘 넘쳐난다. 공단 전 직원은 부서별로 'TS봉사단'에 소속돼 있다. 이 조직은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20명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홀몸노인 수발부터 지체장애인 목욕봉사, 다문화가정 위로행사 등 봉사활동의 종류가 다양하다.

전 직원 TS봉사단… 소외계층 나눔활동에 적극

이 중 공단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로드서포터스'. 지난해부터 전 직원이 참여하고 있는 로드서포터스는 도로에서 차량 사고나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에게 2차 사고 예방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이다.

이를 위해 공단 전 직원은 항상 본인 차량에 야간 유도봉과 고장자동차 표지판(안전삼각대) 등 안전장구를 비치하고 사고 난 운전자를 위해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안전활동을 벌인다.

지난 9월 17일엔 경기 안산시의 다문화아동복지센터를 찾아 안산에 본사를 둔 공단의 정상호 이사장과 임직원 40여 명이 다문화가정 어린이에게 그동안 준비한 마술공연을 선보이고 쌀, 과일 등의 선물도 전달했다. G

글 · 유하룡(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TS

지난 9월 17일 경기 안산시의 다문화 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한 교통안전공단 정상호 이사장(왼쪽)과 직원들이 40여 명의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에게 마술공연을 선보이며 선물을 나눠주고 있다.

동아DB





농어촌에 '생활의 활력' 배달

대학생과 농촌이 문화로 만나는 자원활동 '문화배달부' 호응

요즘 농촌에선 '농활(농촌봉사활동)'보다 '문활(문화활동)'이 인기다. 전국 각지의 농어촌으로 문활을 다니는 대학생 문화자원활동단 '문화배달부' 덕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올해 선발한 총 20개 팀의 문화배달부는 노래교실, 독서교실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고단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1 지난 8월 10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산내초등학교 도서관. 어여쁜 종이인형을 손에 든 아이들이 칠판 앞에 모였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만든 형형색색의 그림을 칠판에 얹고 즉흥적으로 대사를 만들어 인형극을 펼쳤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정식 교사가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여름방학 기간에 농촌에서 '문활(문화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문화배달부' 2기로 선발한 대학생들이었다.

산내초등학교를 찾은 4명의 대학생은 독서교실을 진행하며 마을을 배경으로 한 동화도 만들었다. 냇가를 건널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는 어머니를 위해 돌다리를 놓은 아이들이 훗날 북두칠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각색한 동화였다. 독서교실에 참여한 최현성(11) 군은 "친구들이랑 놀고 형, 누나들과 동화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문활은 문화배달부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됐다. 인형극을 맡았던 대학생 양주현(22) 씨는 "아이들에게 빨래해서 널고 싶은 것을 쓰라고 했더니 '집'이라는 답이 나왔다. 집을 깨끗하게 빨아서 안에 찬 습기를 날리고 싶다는 발상이 놀라웠다. 아이들의 천진한 표정과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을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2 "아이고야,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왔네잉." 지난 9월 4일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암마을 할머니들은 저만치에서 달려오는 대학생들을 보고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 대학생은 8월 14일부터 23일까지 마을회관에 머물면서 다양한 문활로 주민들을 즐겁게 해준 '문화배달부'였다.

대학생 신은총(19) 씨는 "서울에 가서도 용암마을이 눈에 아른거려 학교생활로 바빠지기 전에 한 번 더 왔다"고 했다. 정옥례(71) 할머니는 "엄벙덤벙 시간 보내다 보니 이름도 모른 채 가뿌러서 아쉬웠는디 잘 왔구먼. 손에 나비랑 꽃이랑 그려줘서 참 예뻤는데 다 지워졌어. 아꺼워 죽겄어"라며 학생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할머니의 손톱에는 학생들이 그려줬던 네일아트 자국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학생들은 2주 전 이곳에서 할머니들에게 네일아트와 마사지를 해드리고 콩국수를 만들어 주민들을 대접했다. 또 지저분한 마을회관 외벽에 그림을 그리고, 라디오 방송도 진행했다.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보고 싶은 손자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한 안순금(73) 할머니는 "아주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학생들 덕분에 마을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하고 생기발랄해졌다"고 전했다.

동아DB





문화체육관광부

1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산내초등학교 학생들이 문화배달부 2기인 대학생 양주현 씨(왼쪽 줄 맨 위)와 함께 인형극에 쓸 인형을 만들고 있다.
2 전남 순천시 상사면 용암마을 도서관에서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티셔츠 문양에 염료를 칠하고 있는 마을 할머니들.
3 문화배달부 1기로 선발된 10개 팀은 올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문가 멘터들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살린 문화활동을 기획하는 워크숍에 참가했다.

'이제는 농활(농촌봉사활동) 대신 문활(문화활동)이다.' 전국의 농어촌을 찾아다니며 문활을 하는 '문화배달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문화배달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선발한 대학생 문화자원활동단이다.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촌을 방문해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들의 주된 임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5월 6일 '문화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다양한 협력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문화배달부 사업이다. 기존 농활의 개념을 문활로 새롭게 바꿔 농촌에는 젊은 활력을, 대학생들에게는 농촌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마련됐다.

농촌의 삶 · 문화 이해하고 어르신의 지혜 배우는 계기

지난 5월 문화배달부 1기로 건국대 문화마차팀, 한국외국어대 다정다감팀, 강원대 너나들이팀 등 10개 팀, 61명이 뽑혔다. 1기 10개 팀은 지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워크숍에 참가해 전문가 멘터들과 함께 자신의 재능을 살린 문화활동을 기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름방학에 예정됐던 어학연수나 배낭여행을 뒤로하고 문활에 나선 이들 1기생은 인근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회 이상 현장을 찾아 세대 간, 지역 간 문화교류의 메신저 노릇을 하고 있다.

강원대 너나들이팀은 강원 삼척시 도계리를 찾아 마을 주민들의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얼짱 찾기' 프로그램을 비롯해 '우리끼리 운동회', '도계리 노래한마당' 등을 진행했다. 제주대의 숨비소리팀은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영상으로 담고, 건국대 문화마차팀은 과학캠프를 열었다.

지난 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문화배달부 2기 대학생 10개 팀은 여름방학 동안 짧지만 강렬하게 문활을 벌였다. 8월 여름방학을 맞아 자주 찾기 힘든 섬이나 산골로 파견돼 9박10일 동안 머무르며 집중적인 문화봉사활동을 펼친 것.

건국대 밴드동아리 초아팀은 제주 애월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학교 도서관에서 북 콘서트를 펼쳤다. 전남 해남군을 방문한 용인대 스케치북팀은 농사일 사진전을 주민들과 함께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들 문화배달부는 뉴미디어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특기를 살려 문활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아 홈페이지에 올리고, 실시간 댓글을 달아 그간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는 문활이 보편화돼 과거 농활처럼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문활을 떠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문화배달부 www.ccmessenger.org

"문화를 나누십시오, 새사람 될 거예요"

재소자 문화교육 전문가 톰 맥길 씨 초청 워크숍

최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특이한 워크숍이 열렸다. 전과가 있는 강사가 전국 46개 교정시설에서 모인 현역 교정공무원들을 상대로 재소자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강의를 한 것. 북아일랜드에서 온 은발의 영화감독 톰 맥길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에게서 재소자 문화예술교육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 들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톰 맥길 씨는 영화제작을 통해 재소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1월 17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교육진흥원) 강당. 법무부 교정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 해외 전문가가 워크숍을 가졌다. 그는 북아일랜드의 재소자들과 함께 2년에 걸쳐 영화 〈미키 비(Mickey B)〉를 제작한 재소자 문화교육 전문가 톰 맥길 씨. 그는 강연을 통해 재소자 문화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진행방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북아일랜드 출신인 맥길 씨는 19세 때 폭력행위로 3년형을 선고받아 영국 베드퍼드 교도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다. 수감생활 중 예술교육을 받게 되면서 교화돼 출소 후 곧바로 대학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예술교육을 공부했다. 현재는 ESC라는 영화제작사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하면서 재소자를 대상으로 영화제작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교도소에 있을 때 경험한 나 자신의 변화를 통해 예술교육의 힘을 알게 됐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위한 예술교육, 특히 연극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전통적 교육법으로는 재소자 교화하기 어려워"

맥길 씨는 "학생들에게 수동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전통적인 교육법으로는 재소자들을 교화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연극, 그중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 범죄와 복수, 후회, 죄책감 등을 복합적으로 담아낸 셰익스

피어의 희곡이었다. <맥베스>를 원작으로 한 영화 <미키 비>가 완성될 때까지의 2년간 재소자 간 분쟁은 물론이고 교정공무원에 대한 폭력, 절도, 마약 복용 등의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정도로 교도소 분위기는 크게 변했다고 한다.

맥길 씨는 영화의 주연이자 무장강도범으로 20년 징역을 살았던 샘 매클린의 이야기를 인용했다.

"무장강도 외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무것도 훔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것이라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고 자유는 돈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샘 매클린은 4년 전 출소해 지금은 열차를 청소하며 여가시간에는 ESC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예술활동 참여만큼 재소자들에게 효과가 높은 교정교육은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부터 교육진흥원이 전국의 교정시설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문학, 뮤지컬, 음악, 국악, 연극 등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 지금은 20여 개 교정시설 재소자들에게 연간 30회(60시간)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재소자 문화예술교육은 세금 줄일 수 있는 방법"

하지만 '재소자들이 문화생활을 즐긴다'는 오해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맥길 씨는 "재소자들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은 그들의 갱생을 위한 것인 동시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영화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은 약 5만 파운드(9천만원)였다. 그런데 재소자 한 명의 관리를 위해선 1인당 연간 8만2천5백 파운드(1억5천만원) 정도의 세금이 필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다시는 교정시설에 들어오지 않도록 교화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절세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 중인 교정공무원들은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천소년교도소 황영복(55) 교도관은 "우리 교도소의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제대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해 도덕이나 양심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뮤지컬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하고 자기가치를 발견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워크숍 다음 날인 11월 18일에는 이화여대 내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영화계 및 미디어 관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키 비>를 감상하고 영화제작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져 재소자들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G

글 · 이윤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톰 맥길 씨가 재소자들과 함께 만든 영화 <미키 비>는 2008년 아일랜드의 아서 퀴슬러 영화제에서 로저 그래프 우수영화상을 수상하면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문화예술교육으로 재범률 낮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재소자들이 단체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적극적인 자기계발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 복귀율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꽃피운 문화예술교육 안양교도소

2천명이 넘는 재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안양교도소는 노래교실, 시 창작교실, 미술치료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울고 싶어라'의 가수 고(故) 이남이 씨도 이곳에서 시 창작교실을 운영했다. 재소자들의 평균 전과가 7범이라 청송교도소 다음으로 '센 곳'으로 분류된다는 이곳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은 성과를 내고 있다. 안양교도소 교육교화과 조동주 교사는 "대부분 처음에는 귀찮아하지만 교육을 받은 후엔 모두 밝은 표정이 된다"며 "이젠 재소자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를 씻는 오카리나의 화음 청송교도소

1천2백50명의 수감자 중 10년 이상 장기수가 3백명, 무기수가 70명 이상으로 '교도소 중 교도소'로 불리는 청송교도소는 지난해 6월부터 '조이뮤직스쿨'을 통해 오카리나, 우크렐레, 아코디언 등으로 연주수업을 시작했다. 강도살인죄로 17년형을 선고받고 9년째 복역 중인 김모(40) 씨는 "사회에 있을 때 치던 기타와 비슷한 우크렐레를 쳤더니 옛 생각이 나면서 과거에 저지른 일이 후회된다"고 털어놨다.

뮤지컬로 신뢰와 책임감 배워요 김천교도소

국내 유일의 소년교도소인 김천교도소는 소년범죄의 특성상 출소 후 효과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검정고시 준비과정과 각종 직업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뮤지컬 교육이다. 12월 중 공연을 목표로 뮤지컬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연'의 이유정(44) 대표는 "공동창작을 하면서 아이들이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약속과 책임감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완벽 부활 ‘마린보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자유형 세 종목 거푸거푸 금메달… 총 7개 메달 획득

정점과 바닥을 한 번씩 찍어서일까. 재도약 곡선의 커브와 탄력은 그 상승 강도를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다. ‘마린보이’ 박태환.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이후 내리막길을 걷던 그가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완벽하게 부활했다. 주 종목인 자유형 2백미터와 4백미터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했고, 자유형 1백미터에서도 괴력을 과시하며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이어 또다시 3관왕을 차지했다. 13억 중국인들조차 놀란 수영 황제의 파격적인 ‘재림(再臨)’이었다.

‘남자 자유형 2백미터(1분44초80) 아시아신기록 금메달, 4백미터(3분41초53)와 1백미터(48초70) 한국신기록 금메달, 1천5백미터와 혼계영 4백미터 은메달, 계영 4백미터와 8백미터 동메달.’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수영은 ‘마린보이’ 박태환(21·단국대)을 위한 무대였다. 2008 베이징올림픽 자유형 4백미터에서 한국 수영 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을 안겨주고 지난해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자유형 세 종목 모두에서 결선 진출 실패라는 수모를 안은 그가 아시안게임 2연속 3관왕과 2연속 7개 메달 획득으로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이다.

사격과 유도, 사이클 등 다른 종목에서 숱한 금메달이 쏟아졌지만 박태환의 부활은 너무나 극적이었다.

박태환은 서울 대청중에 다니던 2004년 아테네올림픽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천재성을 타고났다. 전문가들은 “물 타는 능력은 1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태환은 아테네에서 부정 출발로 헤엄 한번 쳐보지도 못하고 탈락했다. 아픔을 겪은 박태환은 절치부심해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르며 ‘국민 남동생’으로 떠올랐고, 2007년 멜버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4백미터에서 세계대회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스타덤에 오른 박태환은 넘쳐나는 인기를 주체하지 못했다. CF 촬영과 방송 출연,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바빠지면서 훈련을 등한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수영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 기대주였던 박태환의 이런 모습은 수영인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물 타는 능력, 1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

그러나 박태환은 금세 다시 돌아왔다. 2007년 말 전담팀을 꾸려 호주 전지훈련을 떠났던 박태환은 훈련 효과를 얻지 못하자 2008년 2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지도해준 노민상 대표팀 감독 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하루 1만6천 미터의 거리를 소화하는 지옥훈련을 이겨내고 같은 해 4월 동아수영대회

연합

에서 아시아신기록 2개를 세우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뒤 베이징에서 한국 수영의 새 역사를 창조했다.

하지만 올림픽 금메달은 박태환을 다시 흔들리게 했다. 올림픽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로 다닌 해외 전지훈련은 결과적으로 안일한 해외여행에 지나지 않았다. 박태환은 "최선을 다해 훈련했다"고 했지만 이어 열린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출전 3개 종목 모두에서 결선 진출에 실패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해제된 박태환에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절실했다. 이때 호주 출신 마이크 볼 코치가 나타났다. 베이징올림픽 때 노민상 감독이 있었다면 이번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볼 코치의 공이 결정적이다.

장거리 버리고 스프린터로 변신 '대성공'

박태환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을 지도해준 노 감독도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지도를 받고 싶었다. 그래서 후원사인 SK텔레콤과 협의해 올해 1월 호주 대표팀을 이끌었던 볼 코치를 개인 코치로 영입했다. 볼 코치는 베이징올림픽 여자 개인혼영 2백미터와 4백미터, 계영 8백미터에서 3관왕을 차지한 스테피나 라이스를 키워 2008년 호주 '올해의 수영 코치상'을 받은 인물.

볼 코치와의 만남 이후 박태환은 다시 연습벌레로 돌아갔다.

"수영을 즐길 수 있게 해주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지도철학을 가지고 있다. 동기유발이 잘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고 자연스레 훈련 성과도 좋았다. 훈련을 하면 때로 힘든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여성스러움도 있다."

그만큼 볼 코치가 박태환의 갈증을 잘 채워줬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박태환이 자유형 1천5백미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체격이 큰 서양 선수들 틈새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박태환은 1천5백미터를 뛰길 내심 꺼려했다.

1천5백미터는 4백미터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 볼 코치는 박태환의 이런 심리 상태를 잘 파악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에 주 종목인 4백미터와 2백미터에 이어 1백미터에서도 금메달을 딴 것은 1천5백미터를 과감하게 버리고 두 종목에 집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볼 코치의 예상은 적중했다.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박태환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했다. 이에 박태환은 1천5백미터의 부담을 털어내고 나머지 세 종목에 집중할 수 있었다. 볼 코치의 말이다.

자유형 1백미터 기록

연도	대회	기록	결과
2006년 6월	국가대표 공인기록회	50초39	1위
2006년 12월	도하아시안게임	50초02(한국신)	2위
2007년 10월	전국체전	49초32(한국신)	1위
2008년 10월	전국체전	48초94(한국신)	1위
2010년 2월	뉴사우스웨일스스테이트 오픈	49초45	1위
2010년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	48초70(한국신)	1위

자유형 2백미터 기록

연도	대회	기록	결과
2006년 12월	도하아시안게임	1분47초12	1위
2007년 3월	멜버른 세계선수권	1분46초73	3위
2008년 4월	동아수영대회	1분46초26(아시아신)	1위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	1분44초85(아시아신)	2위
2009년 7월	로마 세계선수권	1분46초53	준결승 탈락
2010년 2월	뉴사우스웨일스스테이트 오픈	1분46초98	1위
2010년 8월	미국 팬퍼시픽선수권	1분46초27	2위
2010년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	1분44초80(아시아신)	1위

자유형 4백미터 기록

연도	대회	기록	결과
2006년 12월	도하아시안게임	3분48초44	1위
2007년 3월	멜버른 세계선수권	3분44초30(아시아신)	1위
2008년 4월	동아수영대회	3분43초59(아시아신)	1위
2008년 8월	베이징올림픽	3분41초86(아시아신)	1위
2009년 7월	로마 세계선수권	3분46초04	예선 탈락
2010년 2월	뉴사우스웨일스스테이트 오픈	3분45초03	1위
2010년 8월	미국 팬퍼시픽선수권	3분44초73	1위
2010년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	3분41초53(한국신)	1위

"1천5백미터는 선택사항이다. 박태환이 1천5백미터를 뛰는 것은 육상 1백미터 세계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가 3천미터를 달리는 것과 같다. 여러 종목에 출전하다 보면 오히려 평균 기량이 내려갈 수 있다. 박태환의 2백미터와 4백미터는 세계 정상권이지만 1백미터는 20위권, 1천5백미터는 30위권 밖이다."

볼 코치는 앞으로 4백미터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박태환은 정신력이 아주 훌륭하다. 수영 기술도 좋다. 스타트와 턴만 다듬으면 4백미터에서 세계기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볼 코치의 지도로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자유형 1백미터까지 제패한 박태환은 2연속 3관왕으로 대회 최우수선수(MVP) 2연패도 가능하게 됐다. 박태환의 이 기세가 2년 뒤 런던올림픽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G

글 · 양종구(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

“몸으로 느끼니 화선지는 나만의 공간”

사고 후유증 딛고 예술인으로 거듭난 ‘의수화가’ 석창우 화백


조영철 기자

‘의수화가’ 석창우 화백에게 그림은 인생의 전부다. 화선지와 몸으로 소통하며 원초적인 인간 내면을 그려내는 일을 평생 즐기고 싶은 게 그의 희망이다.

**양팔이 없는데도 예술혼을 불사르는 의수 화가가 있다.
석창우(55) 화백이다.
그의 양손엔 열 손가락 대신 좌우 하나씩 금속 집게가
두툼한 볼트에 의지해 매달려 있다.
육신의 체온이 전해지지 않는 차가운 의수지만
그의 붓 끝에서는 창작의 열정이 피어오른다.
기적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빌려 쓰고 싶지만
정작 그는 여기까지 온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애인이라도 노력하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1984년 어느 날 석창우 화백은 모처럼 긴 잠을 잔 듯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그가 일주일간 누워 있던 곳은 병원 중환자실. 동공이 시야의 사물과 색을 느끼는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어깨가 오그라들고 있다는 것도 함께 느꼈다.

석 화백은 전기관리자로 현장 근무를 하던 중 무려 2만1천9백 볼트의 전류에 감전돼 양팔을 잃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지만 병원에서만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고, 12차례의 대수술을 견뎌내야 했다. 상실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따질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그는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라고 태연히 넘긴다.

“어차피 전기 다루는 사람이라면 겪을 수 있는 일이었죠. 그만한 전류에 죽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대신 그 사고 덕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꼭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너무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사고 이후 저 자신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며 웃었다.

“감전 사고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된 계기”

병원 치료를 끝내고 새 일을 찾아 나선 석 화백이 지금의 예술적 소질을 발견하게 된 건 아들 때문이었다.

“원래 약초를 캐볼까 하다가 우연히 아들에게 그림을 그려줬는데 제법 솜씨가 좋았나 봐요. 처형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권하더군요.”

굳은 결심 이후 석 화백은 서예와 사군자에 도전해 3년 만에 ‘일필휘지’의 실력을 갖추게 됐다. 그사이 누드 크로키 기




타고난 직관으로 대상의 원초적 자유로움을 부각시킨 석 화백의 스포츠 작품들. 스키, 축구의 몸짓. 먹과 붓으로 빠르게 대상을 포착했다.

법도 배웠다. 서예와 누드 크로키 기법이 절묘하게 조합된 현재의 작품들, 이른바 '서예 크로키'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미술학원에서도 양팔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했어요. 전주까지 찾아가서 만난 서예과 교수님도 난감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달라'고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해보자'는 답을 주시더군요."

"도자기에 서예 크로키 그려 넣은 작품 만들고 싶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힘들다는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서예대전 등에서 입상한 그는 1998년 개인전을 열었다. 의수 장애인이 사고 후유증을 딛고 예술인으로 거듭났다는 소식은 세간의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외부의 평가나 시선은 작품 세계를 펼쳐나가는 데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저에겐 그저 즐길거리, 소일거리일 뿐이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세상에서 발견한 유일한 재미이니까요."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처럼 짧은 시간에 대상의 원초적 자유로움을 새로운 기법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공황 상태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에 석 화백은 주저없이 "아들"이라고 말한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내면의 목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컸을 때 남들한테서 '너희 아버지는 팔도 없으니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아들에게는 처음 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이 상태일 텐데, 거기다 노력까지 안 하는 걸 보여줘선 안 되겠다 생각했죠. 지금은 그럽니다. 저보고 '무늬만 장애인'이라고요."

석 화백은 첫 개인전 후 지금까지 28회의 개인전을 열었다. 미국과 독일, 중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인간의 몸짓에 초점을 맞춘다.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대상의 움직임→포착→화백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전개된다. 그래서 석 화백의 작품에선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어떠한 장식도 없다. 그가 최근 펴낸 저서의 제목처럼 그야말로 '선과 묵과 누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림을 그려내기까지는 타고난 직관이 발휘된다. 모델을 보고 또 보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기법이 아니라 몸과 붓이 거침없이 함께 한 흐름으로 움직인다.

석 화백은 "저 스스로 감정이입할 시간은 생략하고 거침없이 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에게 몸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 그에게 몸은 화선지와 내면의 자아를 연결하는 매개체다.

"지금 이 물체(의수)로는 화선지하고 나하고 감각이 안 닿

'석창우의 선과 묵과 누드의 세계' 발간

석 화백의 인생사 고스란히 담겨



석 화백의 작품 그리고 그의 인생사를 담은 '석창우의 선과 묵과 누드의 세계'(인사동문화)가 발간됐다. 책에는 석 화백과 서예가인 여태명 원광대 서예과 교수의 격의 없는 대담을 비롯해 1회부터 28회까지 석 화백의 개인전에서 전시된 주요 작품과 전문가들의 평론이 담겨 있다. 한편 석 화백의 초대전이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에프앤아트스페이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다이내믹한 스포츠인 축구와 사이클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순간 포착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인사동문화 ☎ 02-745-0283
에프앤아트스페이스센터 ☎ 02-725-7114



석 화백이 경륜장을 찾아 경기를 관전하며 그린 작품. 역동적인 움직임과 힘의 분출이 폭발적으로 형상화됐다.

잖아요. 결국 몸으로 느끼고 대화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화선지는 결국 제 생활공간이 되는 거죠. 외부 세계와 차단된 저만의 집입니다."

석 화백의 최근 관심사는 역시 인간의 내면이다. 스스로 "이제 껍데기만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곧 석 화백 스스로를 치유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나라의 전통 예술, 스포츠 스타들의 플레이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인다고 한다.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이 보이니 일이 더 재미있다"

"화려한 트리플러츠를 펼치는 김연아 선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인상 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연기를 위해 적잖은 마음고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겉모습뿐 아니라 내면이 보이니 일이 더 재미있어졌어요."

석 화백은 앞으로 보존성이 좋은 도자기에 서예 크로키를 그려 넣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때문에 본인도 정확히 헤아릴 수 없는 작품 수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참이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느냐고 물으니 "제 작품은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뭐가 좋다'라고 말하면 자식들끼리 질투할까봐 말하지 않겠다"고 재치있게 되받았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긍정의 힘과 새로운 '유희거리'를 얻은 석 화백의 먼 꿈 역시 지금의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림을 그리는 일에는 정년퇴임이 없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자나 깨나 꿈에서도 이 일 생각뿐입니다." G

글 · 유재영 기자



황문현 작가

대형 화선지와 몸과 붓이 하나가 되어 탄생한 인간의 다이내믹한 움직임.

'남격' 합창단에 보내준 사랑 좋은 뮤지컬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칼린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수상

KBS 2TV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에서 합창단을 이끌었던 예술감독 박칼린(43) 씨가 '2010년 여성문화인상'을 받았다.

여성문화인상은 2008년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여성문화인의 진출을 활성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여성·문화네트워크와 여성신문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상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문화 관련 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국민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동아DB



박칼린 씨는 KBS 2TV 프로그램 '남자의 자격' 합창단을 이끌며 특유의 카리스마와 따뜻한 리더십으로 '박칼린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박칼린 씨는 뮤지컬계의 '미다스 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성 문화예술인으로서 능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여성문화예술인에게 중요한 역할 모델로 자리 잡은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 씨는 "그동안 조용히 살았는데, 올해는 영화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또 "여성으로서 문화에 속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 여름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에서 '남격 합창단'을 지휘해 큰 주목을 받았다. 초보자로 구성된 합창단을 이끌고 전국 합창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을 받으며 '박칼린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다. 합창단을 이끌며 보여준 특유의 카리스마와 따뜻한 리더십은 기업 최고경영자(CEO)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조용히 일만 하고 살았는데… 올 한 해 영화 같아"

한국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 씨는 경남여고 연극부에 들어가 뮤지컬과 인연을 맺고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서울대 대학원에서 국악작곡학을 공부했다. 그리고 28세의 나이에 뮤지컬 〈명성황후〉로 데뷔해 〈사운드 오브 뮤직〉, 〈페임〉, 〈시카고〉, 〈렌트〉, 〈노틀담의 곱추〉, 〈미녀와 야수〉, 〈아이다〉 등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최근 그는 이런 이야기 등을 담은 에세이집 〈그냥(Just Stories)〉을 펴냈다.

한편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수상자인 박칼린 씨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에는 청년작가를 지원하는 '아트로드 77' 등을 개최하면서 지역에서 여성문화예술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경기도의 헤이리 예술마을이 선정됐다.

또 '신진 여성문화인상'에는 유다희(미술기획자), 곽정(하피스트), 김지은(바이올리니스트), 시와(싱어송 라이터), 정인숙(연극배우) 등 5명이, '문화예술특별상'에는 여성국극의 보존과 계승, 발전에 힘써온 한국여성국극예술협회가 선정됐다. G

글 · 이혜련 기자

"서로의 벽 허무니 모두가 주인공"

연극으로 이웃과 하나 되는 서울 중랑구 임대아파트 주민들

'이웃사촌'과 연극으로 하나 된 이들이 있다. 서울 중랑구 임대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이다. 연극으로 제2의 삶을 만나게 됐다는 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11월 30일로 예정된 공연 준비에 한창인 연습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 임대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의 또 다른 직업은 연극인이다. 올해 두 번째 작품을 준비하는 이들은 중랑구청에 일주일에 3번씩 모여 연습하고 있다.

"자, 어머님, 목소리는 더 크게, 무대에서는 절대 엉덩이를 관객에게 보이시면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시구요. 행동도 크게 해주세요. 오늘은 실제 공연에 대비해서 더욱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극단 '어우름'의 전윤환(25) 조연출의 지도에 따라 시작된 연극 연습. 추워진 날씨에 한기가 살짝 도는 연습실이지만 여기 모인 8명 주민의 열정만큼은 한여름을 방불케 한다.

"엄마, 엄마는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알기나 해? 만날 공부, 공부, 공부. 지겨워 정말."(정련화 · 18 · 학생)

"에휴. 가족들 본 지도 10년이 다 됐네. 이번에도 못 갈 텐데…."(주영숙 · 41 · 중국 연변동포)

"여보세요? 응, 잘 지내지? 아니, 이번 명절에 오나 해서. 애들은 잘 크지. 몸 관리 잘하고 밥 잘 챙겨먹…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려 바쁠 만도 하지…."(최상윤 · 76)

11월 30일 무대에 오르는 이 연극의 제목은 〈행복 중랑 사랑만들기〉. 제목처럼 중랑구 상봉동 임대아파트 12단지 주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한 연극이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배우들은 각자 자신과 이름, 직업, 나이가 같은 역할을 맡았다.

대본 작업에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더 뜻깊은 작품이 됐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외운 대사에는 진정성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최고령자인 최상윤 할머니는 한글을 잘 읽지 못하지만 가족과 이웃들이 읽어준 대로 노련하게 대사를 소화해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원하고, 기획과 지도를 맡은 극단 어우름의 도움으로 주민들은 지난해 처음 무대에 섰다. 중랑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각색한 〈효녀 중랑〉은 관

객들에게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식 공연 이후 국회에서 따로 초청을 받아 올해 2월 다시 한 번 무대에 올랐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

"일하랴 가족 챙기랴 바쁘고 피곤한데 이렇게 매일 저녁 연습실에 나와서 연습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올해는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 공연을 본 딸이 엄마가 무대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올해에도 꼭 참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사실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같이 연습했던 사람들도 보고 싶고, 왠지 저도 마음이 허전해서 이렇게 다시 연습하게 됐답니다."(김미숙·57)

올해 무대에 오를 작품은 지난해 〈효녀 중랑〉을 준비하면서 생겼던 갈등과 에피소드, 실제 공연했던 연극 내용이 교차되면서 더욱 재미있어졌다. 8명 중 5명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넘게 동고동락한 탓에 동과 동, 현관과 현관 너머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꿰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직접 무대에 서보니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삶"

최연소 참가자인 정련화 양은 "소심한 성격을 고쳐보라고 엄마가 등을 떠밀어서 참여했는데 실제로 성격도 활발해졌다"며 "예전에는 이웃 어른들이 어렵기만 했는데 이렇게 자주 뵙고 항상 예뻐해주시니 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학업도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양이 딸처럼 느껴진다는 이은복(53) 씨는 "중랑구에 산 지 15년째인데도 직장생활을 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주변에 누가 사는지조차 몰랐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는 한순간을 위해 함께 연습하다 보니 정말 가까워졌다"고 했다. 또 "직접 무대에 서보니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물론 연극을 준비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다. 각자 바쁜 생활 틈틈이 연습시간을 맞추다 보니 참가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누구는 주인공이고 누구는 대사도 없느냐는 불평도 있었다. 대본에도 녹아 있지만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을 바라보는 주위의 편견과도 싸워야 했다. 때로는 주민들 개개인의 사생활 등에 집중된 왜곡된 세간의 관심 때문에 상처도 받았다.

그럼에도 또 한 번의 공연을 앞두고 8명의 주민과 극단 어울림은 매일 6시간씩 연습 삼매경에 빠져든다. 무대 위에서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모두가 주인공인 연극을 위해서다. "우리, 작품으로 보여줍시다." 연습 시작과 끝에 '파이팅'을 외치는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날 연극 무대를 기대할 수 있었다. G

글 · 정고은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정혜승 극단 어우름 대표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게 하는 예술의 힘



정혜승 대표는 "이웃들이 연극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지난해부터 지역 고유의 특색에 맞는 '행복한 공동체'를 문화 체험을 통해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극단 어우름도 지난해 심사를 거쳐 사업 제안서가 채택돼 상봉동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극단 어우름을 이끄는 정혜승(57) 대표를 만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계기는.

'우리가 가진 재능만으로도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는 누구나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연극을 통해 우리 이웃들이 자신의 숨은 재능을 발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연극뿐 아니라 노래, 댄스, 요가 수업도 함께 한다고 들었습니다.

월·수·금에는 연극을, 화·목에는 노래 강습, 댄스스포츠, 요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극에서 표현력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수업들이죠.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는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운동도 되기 때문에 공연이 가까워져도 이런 수업들을 빠뜨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지도하면서 언제 보람을 느낍니까.

연극 연습은 주로 극단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저는 대사 교정이나 총리허설 때 연습실을 찾습니다. 주민들의 표현력이 좋아지고, 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게 눈에 보일 때마다 뿌듯합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서로 벽과 등을 맞대던 이웃들이 진정한 '이웃사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서 문화예술의 힘이 강하다는 것도 새삼 알게 됩니다.

서민 전세자금보증 팍팍 서 드립니다

금융소외계층 우대하는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 마련

집이 없어 고통 받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층 강화된 전세자금보증 상품을 내놨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등에게 우대 혜택을 주는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가 그것.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이들 상품의 특징과 보증 내용을 상세히 알아봤다.


동아DB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가구주택 세입자 등 집 없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때 대신 보증을 서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1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빌리려던 기초생활수급자 양길동(가명) 씨는 인근 은행을 찾아 국민주택기금 저소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이사할 때 필요한 자금은 1천5백만원이지만 은행 직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인 1천2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보증을 서줄 사람도 담보도 없는 양 씨로서는 부족한 3백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신용보증이 유일한 대출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은행 직원은 보증 한도가 낮은 이유가 당시 양 씨가 지고 있던 부채(2천만원 수준) 때문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조치' 대상에 해당되면 보증 한도를 계산할 때 기존 부채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일러줬다. 그 길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을 발급받아 특례보증을 신청한 양 씨는 필요한 자금 1천5백만원을 전액 대출받아 무사히 이사할 수 있었다. 양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특례조치 덕분에 가족들이 좀 더 나은 보금자리로 옮겼다. 올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것 같다"며 좋아했다.

#2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한섬(가명) 씨는 2004년 10월에 국민주택기금에서 1천7백만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갔다. 대출 당시 국민주택기금 최장 이용기간은 6년이었다. 이후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지난 6년 동안 대출금을 열심히 상환했지만 7백만원을 갚는 데 그쳤다.

만기가 가까워오자 남은 대출금 1천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몰려왔다.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김 씨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주택기금 대출 만기가 된 서민을 위해 별다른 신용평가 없이 대출 잔액을 은행 대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해준다는 것이다.

김 씨는 만기일에 맞춰 은행에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조치'를 신청하고 대출 잔액 1천만원을 다시 빌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특례조치가 없었더라면 엄청난 이자 부담을 안고서라도 사금융에 손을 댔을 것"이라며 "저소득과 빚에 쪼들려 악순환을 거듭하는 서민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이 같은 특례조치가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조영철 기자

전세난이 심해지고 전세 보증금이 급등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이 부족한 금융소외계층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필요한 담보(부동산, 예금, 연대보증 등)가 없는 서민을 위해 공사가 대신 보증을 서줌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무주택 세입자가 대출받을 때 이용하면 좋은 '전세자금보증', 아파트 중도금이 필요한 서민을 위한 '중도금보증', 주택 구입자금이 필요한 서민을 돕는 '구입자금보증'은 주요 주택보증 상품으로 꼽힌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현재 집중 지원하고 있는 상품은 일반 전세자금을 보증할 때 금융소외계층 등을 우대하는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다.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대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최원창 주택보증부장은 "정부의 서민 지원 강화정책에 맞춰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금융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집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상품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 업무는 대부분 금융기관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전세자금보증 특례조치를 취급하는 기관은 16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씨티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수협, 제주은행)이다. 다만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대출 특례보증 신청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에서 가능하다. G 글 · 김지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 ☎ 02-2014-8432 www.hf.go.kr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증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주는 제외)
보증 한도 부채를 감안하지 않고 소득 수준만 고려해 1천5백만원(공공임대주택 채권보전조치 시 2천6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 이내까지 보증
지원 실적 2009년 6월부터 시행.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6건, 6천5백만원 지원

신용회복 지원자에게는…

보증 대상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자(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제외)
보증 한도 보증거절등급자라 하더라도 1천5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 이내 금액 보증
지원 실적 2008년 11월부터 시행.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3백39건, 31억4천4백만원 지원

장기전세주택 입주자에게는…

보증 대상 다달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차보증금만 내면 되는 장기전세주택(SHIFT) 분양 계약자
보증 한도 1억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 이내 금액 보증
지원 실적 2008년 6월부터 시행.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6천3백29건, 2천6백42억9백만원 지원

국민주택기금대출 만기대환대출자에게는…

보증 대상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나 서민 전세자금대출 최장 만기(6년) 이용자
보증 한도 별도의 신용평가 없이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와 국민주택기금 대출 잔액의 90퍼센트 중 적은 금액
지원 실적 2010년 6월부터 시행. 2010년 10월 말 현재까지 3백27건, 44억1천1백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일러스트 · 남동윤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관행 뿌리 뽑자"

방송3사 · 제작사협회,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방안에 합의

일부 외주제작사들의 출연료 미지급 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이하 한예조)에 따르면 방송 3사의 외주제작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누계 금액은 올해 7월 말 현재 43억6천8백여 만원에 달한다.

한예조 소속 연예인들은 8월 말 스태프와 연기자들의 숨통을 죄는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지상파 방송 3사가 당시 방송 중이던 외주제작 드라마 13편에 대해 촬영 전면 거부를 결의하기도 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최근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출연료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길환영 KBS 콘텐츠본부장, 조중현 MBC TV제작본부장, 박종 SBS 드라마센터장, 신현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은 11월 15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김갑수 미디어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정한근 방송진흥기획관이 참관한 가운데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은 방송 3사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외주제작에 참여하는 연기자 등을 보호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날 합의에 따라 방송 3사는 외주제작에 참여하는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등을 막기 위해 건실한 제작사를 선정해야 하며, 드라마 제작사는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지 못한 경우 출연료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사와 합의한 출연료 등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

"방송사 · 외주제작사 상생협력으로 동반성장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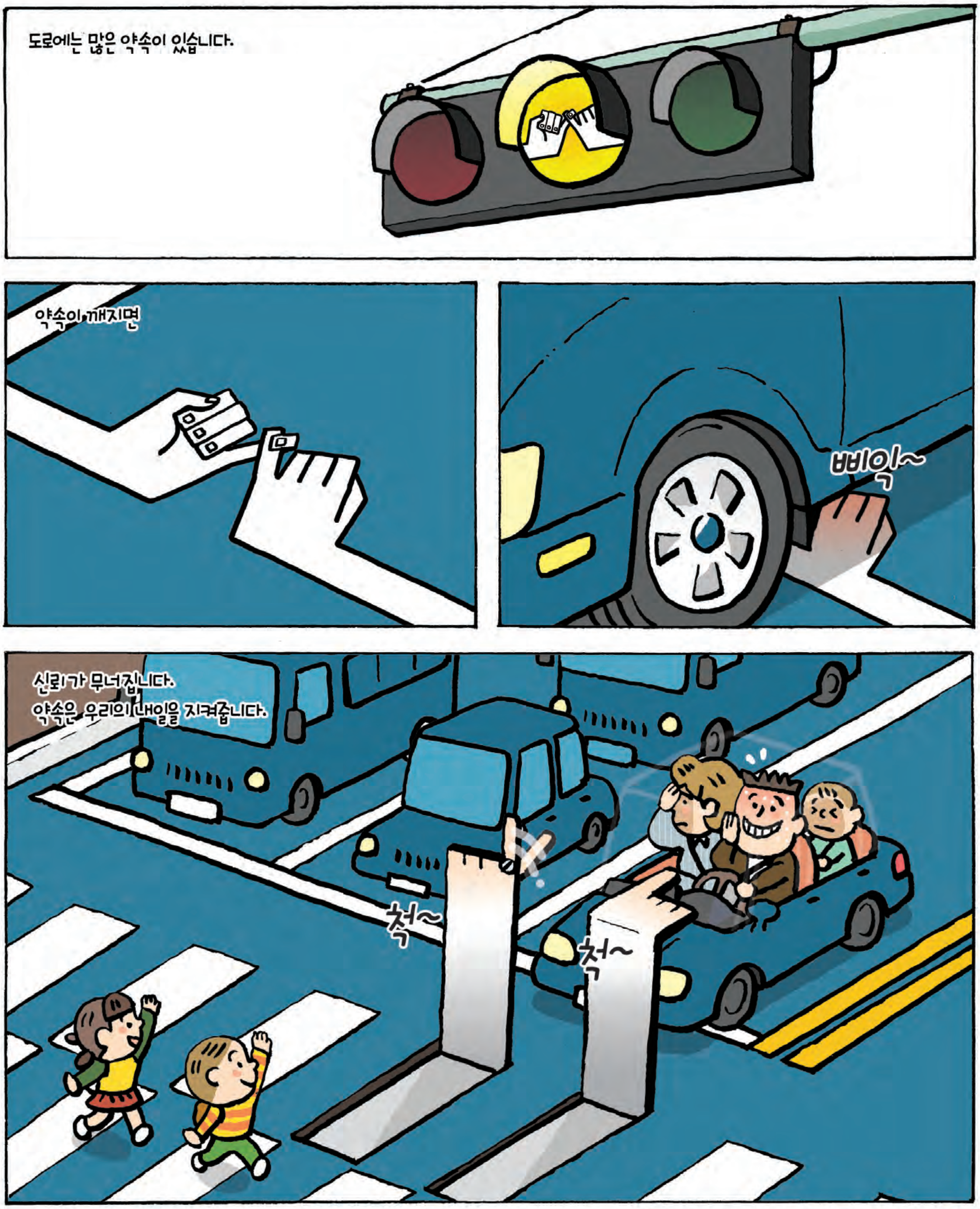
조윤선 의원은 "외주제작 참여자 보호를 위한 이번 합의문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큰 토대가 될 것"이라며 "방송 3사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협력해 우리 방송제작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갑수 미디어정책국장은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상생 차원에서 방송사와 제작사가 처음으로 출연료 미지급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상호 합의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합의가 외주제작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출연료미지급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약속해줘~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정지선을 지켜주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의사를 위하여





일러스트 · 이우정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 리사 샌더스 지음 · 장성준 옮김 / 랜덤하우스 펴냄 · 1만3천8백원

〈종합병원〉〈하얀 거탑〉〈뉴하트〉 등 의학 드라마는 우리에게 의료 현장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해주는 계기를 제공했다. 더욱이 이 드라마들의 인기로 많은 의학 관련 도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 안내서와 생생한 체험기도 쏟아져나왔다. 이제 누구나 의학과 관련된 서적 몇 권쯤은 소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주목할 만한 한 권의 의학 서적이 있다. 리사 샌더스 미국 예일대 의대 내과 교수가 〈뉴욕타임스〉에 연재한 인기 의학칼럼 '진단'을 묶어 펴낸 〈위대한, 그러나 위험한 진단〉이다. 최근 시즌6까지 방영된 미국 폭스TV의 인기 의학 드라마 〈닥터 하우스〉의 모태가 된 책이다.

저자는 원래 TV 프로듀서였다. 어느 날 프로그램 촬영 중 물에 빠진 노부인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장면을 보면서 영상은 수백만명에게 전달돼도 그것을 보며 감동하는 사람이 드문 반면, 의술은 지극히 제한된 몇몇 사람에게 전달되지만 환자의 삶을 바꿀 만큼의 위대한 힘이 있다는 깨우침을 얻고 방송 일을 그만두고 의사가 됐다고 한다.

저자의 독특한 이력만큼 이 책은 보통 의학 서적과 다른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의사의 길로 전향한 저자가 의료 현장에서 마치 셜록 홈스처럼 병명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려냈기 때문이다.

의학을 소재로 한 많은 책들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의 고통을 의사들이 함께하면서 이를 치유해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린다.

하지만 이 책은 현대 의학이 풀어내거나 때론 풀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질병에 맞선 의사들이 어떻게 질병을 진단하는지 그 과정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소개한다. 진단 과정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오류와 의학적 사고의 한계에 대해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

저자는 과학기술 발달로 의료기기에도 첨단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손끝으로 느끼는 촉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말을 듣는 '병력 청취'가 70~90퍼센트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진단도구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소 시간이 걸려도 환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간 중심의 진단'이 의료 과정의 방향성을 잡는 '열쇠'라고 말한다.

평범한 독자들보다는 의사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지만 항상 환자가 될 잠재성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의사가 질병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가 몰랐던 질병의 진단 과정이 어떤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G

글 · 류한숙(국립중앙도서관 사서)

넘침이 없어야…

글과 그림·최영순



늘 모자랄까 봐 미리 준비해 쌓아두는 마음이 곧 결핍이다. 두 개를 갖게 되면
하나만을 지녔을 때의 그 풋풋함과 살뜰함이 소멸되어 버린다. – 법정스님

클래식 선율, 마음도 추위도 녹이다

중국의 천재 피아니스트 랑랑 리사이틀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이 세번째 내한공연을 갖는다. 랑랑은 3세 때 피아노를 시작해 13세 때 제2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청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한 천재 피아니스트다. 17세 때 라비니아 페스티벌에서 앙드레 와츠의 대타로 성공적인 협연을 펼치며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의 자리에 올랐다. 클래식의 틀에 갇히지 않고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음악활동을 펼치는 연주자로도 유명하다.

미국의 인기 TV 프로그램 '투나잇 쇼',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 출연하고 제50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재즈 거장 허비 행콕과 듀오 연주를 펼치는가 하면, 영화 〈페인티드 베일〉의 OST 연주로 2007년 골든 글로브상 음악상을 받았다. 200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서 13억 중국인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출연해 전 세계인들 앞에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하는 기회를 가졌다.

올 들어서는 지난 4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공연에서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을 아이패드로 연주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런 그를 위해 세계적인 피아노 제조사인 스타인웨이가 창사 1백50년 만에 처음으로 제품에 연주자의 이름을 붙인 다섯가지 모델의 '랑랑 스타인웨이'를 발표해 클래식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 공연에서 매진에 가까운 객석 점유율을 보인 그는 이번 공연에서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열정'을 비롯한 총 4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화려하면서도 힘 있는 연주력, 아우디와 몽블랑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자사의 이미지 모델로 선택할 정도의 뛰어난 외모를 갖춘 그가 연주하는 감동의 선율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기회다. G

글 · 이윤진 기자

일시 12월 4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41-3183 www.ntok.go.kr

● 전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Life & Nature〉

월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주옥같은 사진들을 한데 모은 전시로,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 '지구 환경과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로 2백여 점의 사진을 만날 수 있다.

일시 12월 9일까지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관람료 성인 1만원, 학생(초중고) 8천원, 유아 6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471-8956 www.sac.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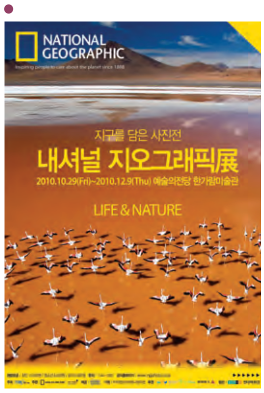
●● 연극 〈경숙이, 경숙이 아버지〉

차세대 연출가로 꼽히는 박근형이 연출한 작품으로, TV 드라마로도 제작되어 더욱 낯익다. 서울 예술의전당의 창작극 기획 공연 프로젝트인 '명품 연극 시리즈' 첫번째 작품이다.

일시 11월 20일~12월 5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1층(지정석) 3만원, 2, 3층(자유석) 2만원,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80-1300 www.sac.or.kr

●



●●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나를 찍어주세요!!

어디로 간거죠?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거죠??

지금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로 들어오면 청사이전에 대한 정보와 역사 그리고 푸짐한 이벤트가 진행중 입니다.